

한인뉴스

4

2011 VOL.178

haninnewsinni@gmail.com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남다른 생각의 스케일로 대한민국의 영역을 넓히고 개신 당신을 위해
대한항공도 생각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서비스의 생각, 네트워크의 생각,
편안함에 대한 생각 - 당신의 기대까지도 뛰어넘는 서비스로 더 크게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점 : 0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Garuda Orient Holidays

www.garudaholidays.kr

GO! 와 여행하기

국제선*국내선 항공권 발권서비스 및 전 세계 호텔예약 서비스



국제선 항공권

가루다항공, 대한항공, 싱가포르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에바에어, 로알타이항공, 일본항공, 차이나 에어라인, 전일항공, 칸타스항공, KLM 로알 더치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루프트한자 항공, 에어프랑스, 스위스에어

국내선 항공권

가루다 항공, 라이언 에어, бата비아, 스리 위자야

"가루다항공 자카르타 AIRTEL"

인천발 자카르타행 기내에서 이민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편리해진 가루다 항공 에어텔 프로그램

Resort	Room Type	2인 1실			1인 1실		
		항공 + 2박		1박 추가	항공 + 2박		1박 추가
		2/5~2/28	12/25~2/4		2/5~2/28	12/25~2/4	
IBIS Kemayoran ★★★	Standard	759,000	789,000	34,000	829,000	859,000	68,000
IBIS Arcadia ★★★	Standard	769,000	799,000	38,000	839,000	869,000	76,000
IBIS Slipi ★★★	Standard	769,000	799,000	41,000	849,000	879,000	81,000
Kartika Chandra ★★★	Standard	769,000	799,000	42,000	859,000	889,000	83,000
IBIS Mangga Dua ★★★★★	Superior	779,000	809,000	43,000	859,000	889,000	85,000
Mercure Rekso ★★★★★	Superior	799,000	829,000	43,000	879,000	919,000	85,000
IBIS Tamarin ★★★	Standard	799,000	829,000	45,000	889,000	919,000	90,000
Aston Marina ★★★★★	1 Bedroom	799,000	829,000	47,000	899,000	929,000	93,000
Le Meridien ★★★★★	Superior	829,000	859,000	58,000	949,000	979,000	115,000
Crowne Plaza ★★★★★	Deluxe	839,000	869,000	63,000	969,000	999,000	125,000
Gran Melia ★★★★★	Deluxe	879,000	919,000	85,000	1,059,000		170,000
Mulia Senayan ★★★★★	Splendor	959,000	989,000	122,000	1,219,000		244,000
Four Seasons ★★★★★	Superior	969,000	999,000	124,000	1,219,000		248,000
Ritz Carlton ★★★★★	Grand Room	999,000		140,000	1,289,000		279,000
Mandarin Oriental ★★★★★	Superior	999,000		142,000	1,299,000		284,000
포함사항	인천-자카르타 왕복 항공권(7일 유효), 자카르타 GOH 호텔 2박 숙박 및 조식						
불 포함사항	항공 TAX, 현지 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인도네시아 입국비자						

"인도네시아 주류 여행지 호텔"

	호텔*리조트	풀빌라*산장
발리	★★★★★ ★★★★ ★★★	Inter Continental, Conrad Westin, Nikko Bali, Melia Holiday Inn, Sanur Beach, Bali Kuta Resort & Convention
룸복	★★★★★ ★★★	Sheraton Senggigi, Senggigi Beach Hotel, Holiday Resort
족자카르타	★★★★★ ★★★★ ★★★	Hyatt Regency, Melia, Sheraton Phoenix, Novotel, Satika, Plaza Puri Asri
수라바야	★★★★★ ★★★★	JW Marriot, Shangri-La Plaza, Novotel, Somerset
		Kamuella Vilas Sminyak, The Ahimsa
		Pool Villa Club, The Santosa Vilas & Resort, Puri Mas Boutique Resorts & Spa, Qunci Villas
		Java Ban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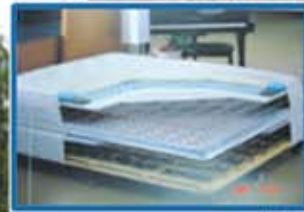
문의 및 예약

다르마왕사 스퀘어 3층 55호

전화 : (021) 7278-0856/0859

이메일 : oh_kumju@primef.co.id / michelle.lee@primef.co.id

*Your dream can come true
with PT.SERIM Indonesia*



Fill the difference with PT.SERIM'S GREEN FOAM & ECO FOAM



PT. SERIM INDONESIA

Medan factory

Cirebon office

Tel. 021) 547-6453~8
Fax. 021) 546-2739/ 546-6601

Tel. 061) 6874-3330~1
Fax. 061) 6874-3332

Tel. 0811-962-8993



세계 자연유산 제주도에 지금 바로 투표합시다!

제주도가 The New7wonders에서 진행 중인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28개 후보지에 선정되었습니다.

제주도 참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우다~~~

대한민국,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전 세계 440여 곳을 후보지로 전 세계 1억 명의 네티즌이 투표한 결과,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세계 28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세계 7대 자연경관이 되기 위한 최종 투표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제주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투표기간 : 현재 ~ 2011. 11. 11 (발표일)

○ 투표방법 : 인터넷 및 전화 투표

전화투표는 제주도 1개만 선정하면 되지만, 인터넷은 제주도를 비롯하여 7개 지역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화투표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유리합니다.

<인터넷 투표> : www.new7wonders.com

- 회원가입 필요, * 가능하면 개인정보 입력시 주재국 국적 표기

- 28개 후보지 중 7곳을 선택 / 소요시간 5분

* 마지막 단계에서 간단한 신상명세 입력 후,

투표시 입력했던 개인 이메일로 보내오는 투표확인 메일에 재 접속하면 투표 완료

<전화 투표>

- 전화걸기(세계 공통) :

* 001(또는 007)-1-869-760-5990

* 001(또는 007)-1-649-339-8080

* 001(또는 007)-44-75-890-012-90

- 사무국 직원의 안내멘트(영어)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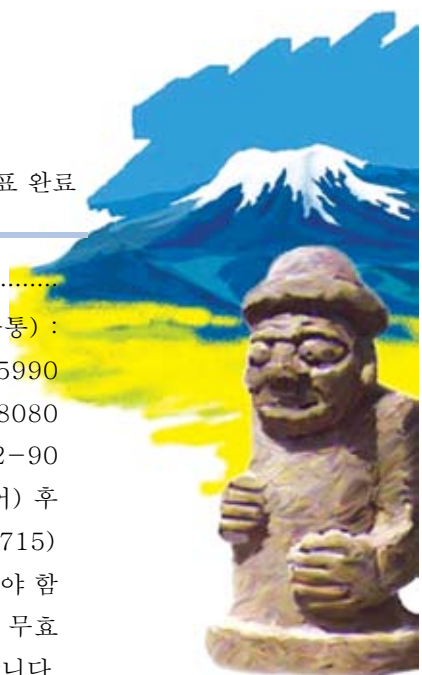
“백~~~” 음이 나오면제주도코드(7715)

입력 후 thank you 멘트가 나온 후 끊어야 함

* thank you 전에 통화종료 시 무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jejun7w.com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jejun7w.com



세계 7대 자연경관 결선후보 28곳 :

제주도(대한민국), 아마존 열대우림(브라질), 앙헬폭포(베네수엘라), 킬리만자로(탄자니아), 펀디만(캐나다), 코모도 국립공원(인도네시아), 검은 숲(독일), 몰디브 섬(몰디브), 부티나 섬(아랍에미리트연합), 마수리안 호수(폴란드), 모허 절벽(아일랜드), 마터호른·체르비노 산(스위스·이탈리아), 사해(이스라엘·요르단·팔레스타인), 밀퍼드 사운드(뉴질랜드), 엘 운케(푸에르토리코), 진흙 화산(아제르바이잔), 갈라파고스 군도(에콰도르),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 강(필리핀), 그랜드 캐니언(미국), 순다르바스(방글라데시·인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호주), 테이블 산(남아프리카공화국), 하롱베이(베트남), 울룰루(호주), 이구아수 폭포(브라질·아르헨티나), 베수비오 산(이탈리아), 제이타 동굴(레바논), 위산(대만)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평상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一日も早く苦難を乗り越えて平常の日常生活に戻れることを祈っております。



일본대사관에 마련된
 재단희생자 빈소에 조문하는
 한인회와 한인상공회의소,
 한국부인회 회장단



추운날이면 그림을 그렸지
한가득 귀를 담고 있는
희거나 푸른 꽃잎

너는 듣고
나는 말했지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
가만가만 눈빛이 흔들렸지

행운의 노루귀꽃

미나리아재비과

학명 *Hepatica asiatica Nakai*

꽃 말 : 인내, 믿음

한국이 원산으로 전국 각지에서 자라는 다년
생 초본이다. 3~4월에 낙엽수림 아래 비옥
한 토양에서 흰색, 분홍색, 보라색 등 여러 가
지 색으로 꽃이 핀다. 추위에 강하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교민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1년부터는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교민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교민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승 은 호 배상

제주에 투표합시다6

산과 들에 피는 꽃 / 한국의 야생화9

차 한 잔 마시며 / 군납과 국익<김문환>12

이달의 테마 / 숲 14

제4회 자카르타학력경시대회시행요강....18

자카르타스케치/가족<정무송>.....19

인터뷰/전택수유네스코사무총장.....20

시사인도네시아 / 소피안 와난디<신성철> ... 22



이모저모,한인사회.....24

- 김호영 대사 임기 마치고 귀국
- 김호영 대사 이임사
- 코린도장학생, 그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 김태영 전 국방장관 정부대표로 인니 방문



표지설명 ▶▶▶

생명의 원천인 숲, 다양한 생물의 피난처인 숲, 탄소 저장고인 숲... 전세계 70억 인구가 생존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숲은 꼭 필요합니다.

표지그림 : Diki Satria Nugraha

안녕하십니까, 박정자입니다.

싱싱한 계란만 바구니에 골라 담듯,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잡지에 골라 담으며 독자들과 만날 시간을 기다릴 때면, 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을 주제로 삼아, 숲에 대한 글을 두 권의 책에서 발췌하여 실었습니다. 또한 육종학의 최고 권위자이신 최해춘 박사님이 '식량위기'를 진단해주셨습니다.

따뜻하고 감동이 있는 삶의 글들이 이번 달 잡지에 실려 있으니 관심 가지고 읽어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4월 하순에 개원될 '한국문화원'도 지면을 통해 미리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김호영 대사님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시고, 김영선 대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교민사회를 다시 채울 새로운 바람을 기대합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5.1070.3065 박정자

- 천안항 1주기 추모 및 결의대회	
- 분재 수석 전시회	
-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한인단체 업무협약	
- 한국의 용무도,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	
- 예총, 신임회장 한상재(칼럼니스트) 씨 선출	
- 망가 그동, 맛이 어때요?	
- 코참, 대정부 및 대외교류활동 확대	
- 한국어강사 모집 / 한국문화원	
- 미리 보는 한국문화원	
- 멋쟁이 사진사들의 이유 있는 출사이야기	
- 제15회 해리티지 열린강좌 / 나쁜 사진사는 있어도 나쁜 카메라는 없다	
- 제9회 한인니문화원 문화강좌 / 인니문화의 이해와 이슬람	
- 동남아국제학교연합 문화컨벤션 2011<길나연>	
- 직스 학부모 서포터즈 워크숍	
- 제1회 어린이사행대회<공고>	
- 한·인니문화연구원 문화탐방기<윤예지>	
■ ■ ■	
삶의 향기-이 사람 / 박한미 내면을 비추는 거울 '해븐스멤버'..... 46	
노블리스 오블리제<정무송>..... 48	
쌀과 식량안보·1<농학박사 최해춘>..... 50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김성월> / 월로가이부족들 54	
이슬람문화의 이해<안선근> / 인도네시아 역사, 문화의 이해와 적응 56	
이병수와함께하는보험교실.....58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이승민> / 입양 60	
4월의 시 나무들 거꾸로 서다 / 이승훈63	
길 위에서<박관구> / 생각노동의 시대 64	
와칭! 코리아 / 현 시점에서 북한 식량지원 과연 필요한가? 66	
드라마에서 퍼 올린 바하사<허영순> / 웃어라 동해야 68	
인도웹이 제공하는 교민커뮤니티70	
인터넷 공모전 '인도네시아 이야기' 공모안내72	
생활정보.....73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승은호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박정자 / 편집위원 :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정무송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군납^{軍納}과 국익^{國益}

김 문 환 / 논설위원

1980년대 한국 상사맨들의 필독서이면서 수퍼 베스트셀러였던 『불모지대(不毛地帶)』라는 대하소설이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이끼 다다시’의 실제 모델로서 11년간의 시베리아 유배에서 돌아온 2년 뒤인 1958년에 촉탁직으로 이토추(伊藤忠) 상사에 입사하여 10년간 회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그 회사를 일본의 4대 총합상사(總合商社)로 끌어 올린 바 있는 세지마 류조(瀨島龍三)는 전후 일본의 정계, 재계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일본제국주의 시절 도쿄제국대학보다도 입학하기가 더 어려웠다는 일본육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대본영(大本營) 참모를 거쳐 만주에 있는 관동군사령부 작전주임참모로 근무하던 중 종전(終戰)과 동시에 소련군에 억류되어 형극의 길을 걷게 된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과도 각별한 인연을 맺어 막후에서 한 일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광주사태’의 아픔을 겪은 직후 분열된 국론을 추스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제5공화국이 1988년도 올림픽 유치경쟁에 뒤늦게 뛰어들어 유력한 후보지였던 나고야를 제치게 된 것도 그의 입김이 작용하였다는 설이 있으며, 1973년 이낙선 상공부장관을 경유하여 그가 한국정부에 제출한 소위 「세지마 류조 계획서」는 1975년 5월에 삼성물산, 대우실업, (주)쌍용이 각각 국내총합상사 제1호, 2호, 3호로 지정되고 그 뒤를 이어 1978년까지 총 13개의 상사가 등록되는 종합상사제도(綜合商社制度)를 탄생시킨 근거가 되었다. 이들 상사들은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받아가며 IMF사태 직후 한 때에는 대한민국 총 무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역할이 지대하였으나 지금은 6~7% 선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자원개발, 신규사업 개척을 위한 ‘자원전문상사’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상사시대의 서막을 연 초기의 한국 상사들은 미쓰이, 미쓰비시 등 공통 같은 일본의 총합상사(總合商社)들을 벤치마킹하며 인도네시아에서도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1976년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Timor Timur)를 무력으로 병합하는 군사작전에 돌입하자 이에 필요한 군수물자 납품권을 수주한 H물산은 대 인도네시아 군납역사의 첫 테이프를 끊은 기업으로 기록되게 된다. H물산은 인도네시아인과 한국인의 족형(足形)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지 못한 채, 동티모르 전선에 투입되는 인도네시아 국군에게 군화를 납품하였다가 클레임을 맞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1980년대 초에 들어서는 제3공화국 실권자의 실형(實兄)이 사주(社主)로 있던 코리아 타코마(한진중공업에 합병)라는 조선사가



전차상륙함(LST) 6척을 인도네시아 해군에 납품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 수주전은 한국, 인도네시아가 수교하기 직전인 1965년부터 이곳에 입국하여 국교수교의 첨병역할을 담당할 적이 있던 기관원 출신 K씨가 상기사 사주에게 건의하여 추진한 과감한 시도였다. 이 수주성사를 위해선 당시 수하르토 정권의 실권자들인 국군사령관 겸 국방부장관인 유습 대장, 국방부 기획국장인 요기 수빠르디 소장, 치안질서회복사령관인 수도모 제독, 국방부 정보국장인 베니 무르다니 소장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난제였던 탓에 이미 오래 전에 이곳에 진출하여 정부고위층에 인맥을 구축하고 있던 K그룹 C회장의 지원사격이 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국군에 대한 신탄 납품사업을 두고 벌어졌던 국내 S상사와 D상사간의 이전투구식 과당경쟁은 현지 당국자들 조차에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지사 사무실이 폐쇄당할 위기에까지 몰릴 정도로 추태를 내보인 사례이기도 하다.

2011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핫타 라자사(Hatta Rajasa) 경제조정장관을 단장으로 한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방위산업을 포함한 양국간의 경제협력이라는 의제를 들고 서울을 방문하였다.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진대로 뿌르노모 국방부장관, 샤프리 삼수딘 부장관을 비롯하여 장관급만 6명이 포함된 이들 사절단일행이 청와대를 예방하는 그 시각에 단원 중 한 명인 공업부 소속 아흐맛 로지(Ahmad Rojih Almansur) 부국장이 투숙한 객실에 누군가 무단 침입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무리 국익을 위한 차원이란 변명하여도 이 사건은 상대국의 대응강도에 따라서는 심각한 외교마찰로 비화될 수도 있는 중대사안이었던 탓에 우리들은 혹시 그 불똥이 우리 교민사회에도 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속에 며칠 동안을 전전긍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언론의 대서특필, 강도 높은 국회 대정부질의 등 뜨거운 한국국내의 정치기류와는 달리, 피해 당사국인 이곳의 상황은 오히려 사건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분위기로 급선회하여 교민들은 가슴을 쓸어 내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되었다. ‘린다 김 스캔들’, ‘조풍언 게이트’의 전례에서 보듯이 유독 군납업에 관련된 문제는, 터졌다 하면 그 심도가 깊고 파장이 크기만 한 것은, 아마 거래단위가 크고 007작전처럼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로 인하여 국격이 실추되고 국익이 손상된다면 지금 한창 제철, 유통, 석유화학, 타이어 등 다양한 아이템을 들고 이곳에 진출하려는 대형 기업들의 투자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이곳에 생업의 터를 잡고 있는 3만 5천 여 교민들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숲..... 사라지는 숲

우리가 햄버거를 기다리는 동안...
 몰디브의 누군가는 해일에 떠내려간다.

숲.....

숲은 휴식처를 제공하고, 식량과 의약품, 깨끗한 물의 원천이며, 다양한 생명체의 보전과 물 공급, 탄소 격리, 홍수 조절, 산사태와 사막화 방지 등 광범위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숲은 지구의 기후와 환경의 안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전세계 70억 인구가 생존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숲은 꼭 필요하다. 2011년은 세계 산림의 해, 유엔 총회는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1년을 '세계산림의 해'로 선포하였다.

생계의 원천 숲

16억 인구가 생계를 위해 숲에 의존하고 있다. 음식과 주거지 이외에 숲은 목재, 땀감, 과일, 견과류, 약용식물 등 시장성이 있는 다양한 목재와 비목재 산물을 제공한다. 2004년에 숲의 산물은 전세계 상품 교역량의 3.7%를 차지했다. 숲은 가장 생산적인 육지생태계로서 기후변화 완화와 농업에 기여하고 있다.

다양한 생물의 피난처 숲

열대, 아열대, 지중해성, 온대, 아한대 지역의 다양한 숲은 육상생태계의 2/3를 차지한다. 이 곳은 수천만 종의 동물, 식물, 곤충이 서식하는 곳이며, 지구 생물다양성의 80%가 건강한 숲 생태계에 의존한다고 알려져 있다. 열대 숲은 특히 종이 풍부하

다. 이 숲은 전체 육지 면적의 10%밖에 안 되지만 육상과 담수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 60% 이상이 이곳에 있다.

탄소저장고 숲

숲은 지구의 탄소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숲



나무를 필요요리로 확실한 약대우리 보은 광고

은 탄소를 저장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대기 방출을 막는다. 지구적 규모에서 숲 생태계는 육상 탄소 중에 지상의 80%, 지하의 40%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지구의 대기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가 숲에 저장되어 있으며(220%), 중요한 탄소저장고로서의 역할은 지구 기후변화 논의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모든 CO2 발생의 20%가 산림벌채와 숲 파괴와 관련되어 있다. 이 수치는 지구 전체적으로 교통수단으로 인한 배출보다 더 많다. FAO(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열대 숲의 주요 위협요인은 급속한 인구증가와 이로 인해 농장과 목초지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어지는 기사는 관련서적에서 옮긴 글이다.>

..... 사라지는 숲

혹시 햄버거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현상...
온도 조절 능력을 상실해 버린 지구...

매초 200명의 미국인이 1개 이상의 햄버거를 소비
하고, 미국의 맥도날드사는 전세계 121개국에
2만 9천여 매장을 거느린 햄버거 왕국을 건설했다.
그 많은 소고기는 다 어디서 왔을까?

햄버거용 소고기 100g에 필요한 물은 2000ml
햄버거 한 조각 때문에 사라지는 숲은 5m²

햄버거 하나를 얻기 위해 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기 위해 숲을 태우고,
소고기 100g과 맞바꾼 1.5명의 사라진 숲과
2,000 l의 사라진 물은 지구의 온도를 매순간 높인다.

아프리카의 숲이 다른 대륙보다 4배나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거목들
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이, 요세미티는 지구 온난화
가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지구 온난화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방출되는 대
기 기체(비정상적인 이산화탄소, 메탄, CFC, 수증
기)들이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빛에너지는 투
과시키면서 우주로 방출되는 빛에너지의 통과는 지
연시킴으로서 점차적으로 인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녹지
를 파괴한다. 증가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높여 극지방의 빙하를 녹인다. 녹은 빙하는 해수면
을 높여 해안지대를 위협하고, 높아진 수온은 해류
를 교란시켜 폭염, 폭한, 폭우, 폭설, 가뭄, 홍수, 허
리케인 등 이상기후를 야기한다.

1992년 192개국 참여로 이루어져서 열린
정부간 기후변화패널은

‘기후변
화협약’
을 체결했
다. 1997
년 12월,
일본 교토
에서 개최
된 기후변



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은 ‘교토의정서’가 채택되
었다. 의정서에 따르면, 선진산업국가 중심의 총 38
개 의무이행 대상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
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감
축하여야 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
어 의무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제 4차 당사국
총회를 통해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멕시코 등과
함께 자발적 의무부담을 선언하였다. 2001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는 미국
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기후변화협약을 탈
퇴하였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는 주로 산업사회의 과다한
화석연료 의존성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환
경이론이 세분화되면서 과다한 육식문명 또한 지구
환경오염에 큰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
고 있다. 고기용 소로 대표되는 가축들이 소비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곡물과 물, 목장 및 방목장 건설을
위한 열대우림 파괴, 과다한 방목으로 인한 목초지
의 사막화, 가축 배설물의 토양, 수질,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다. 특히 방목장을 만들기 위해 산림을 개척하고 태
우는 작업은,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증가 외에
도 숲의 파괴로 인한 광합성 감소효과 등을 통해 지
구 온난화를 가속시킨다.

실제로 전 세계 13억 마리의 소들이 방출하는 메탄
가스는 전체 메탄가스 배출량의 약 18%를 차지한
다. 벌목 후 방치된 나무를 흰개미가 소화하는 과정
에서도 다량의 메탄가스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
다. 매년 봄 한국의 대기오염 주요 원인으로 지적
되어온 중국발 황사 역시 과도한 방목으로 인한 사
막화에 그 원인이 있다. 현재 남미 아마존 개척지의
70%는 방목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야생자
연기금과 월드위치연구소는 1900년대 초 50억 ha
에 달했던 지구상의 숲이 오늘날 29억ha로 줄었다



고 보고하고 있다. 전
통적으로 채식주의
는 개인의 취향이나
건강상의 고려에 따
라 선택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취향이나
건강상의 이유 외에
도 생명체에 대한 존
중, 환경적인 고려 등

신념, 윤리적 운동의 측면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패스트푸드와 값싼 축산식품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햄버거’는 동구 공산권의 붕괴를 기점으로

로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입맛’ 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 121개국에 2만 9000여 매장을 거느리고 있는 미국의 맥도날드는 세계최대의 패스트푸드 기업으로 일명 ‘햄버거 왕국’ 으로 불린다. 멕시코의 환경운동가 가브리엘 과드리는, 1960년대 이후 중앙아메리카 숲의 25% 이상이 목초지 조성을 위해 벌채되었으며 1970년대 말에는 중앙아메리카 전체 농토의 2/3가 소나 다른 가축의 축산단지로 점유되었다고 주장했다. 1987년 이후로도 멕시코에서만 1497만 3900ha의 열대우림이 파괴되었으며 그로 인해 사회불안과 정치적 소요까지 일어나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의 열대림을 희생하고 생산되는 소고기는 주로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지만, 지방분이 적고 미국인의 미각에 그다지 맞지 않아 대부분 햄버거의 재료가 된다. 가브리엘 과드리는 ‘열대림 파괴->육우사육->햄버거 생산’ 으로 이어지는 반생태적 연결고리를 ‘햄버거 커넥션’ 이라고 명명했다.

- 『지식e / EBS 지식채널e』 에서 발췌

또 다른 주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종이에 둘러싸여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서 휴지를 쓴다. 차나 커피를 마시려면 티백이나 필터가 필요하다. 시리얼도 포장지에 담겨 있다. 낮에는 공부나 일을 하면서 엽서, 전단지, 지하철 표, 일기장, 서류, 공책, 복사용지, 스티커를 쓴다. 가게에서 음료를 종이컵에 담아 밖으로 나온다. 저녁에는 극장에 가서 표를 사고 종이 봉지에 담긴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본다. 물건을 사면 상표, 가격표, 영수증이 생긴다. 집 안을 둘러보라. 키친타월, 각종 고지서와 광고지, 한쪽에 쌓여 있는 신문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의 인생도 종이로 시작해 종이로 끝난다. 산부인과 차트에서 마지막으로 사망증서와 검시관의 보고서까지 매순간 종이는 우리와 함께 있다. 현대 문명은 마치 거대한 종이 전시장과도 같다.

지난 40년간 4배 증가 - 하루 소비량 100만 톤(전세계)
 복사지로 환산하면 적도를 1500번 두를 수 있으며
 휴지로는 달까지 200번 왕복 가능
 일 년간 일인당 최대소비국 : 핀란드(324kg)
 최소소비국 : 소말리아(30g, A4, 4장)

종이 50kg은 나무 한 그루,
 한 사람 평생에 237그루의 나무 소비

전 세계가 단 하루 동안 사용하는 종이를 생산하려면 몇 그루의 나무가 필요할까? 1,200만 그루 이상이 필요하다. 제지산업은 매년 산업용으로 벌목되는 나무의 42퍼센트를 소비한다. 깨끗이 청소되는 세계의 숲 면적은 2초마다 축구장만한 천연림이 사라진다. 매년 3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여러 제품 가운데 만들어진 순간부터 매립이나 소각으로 최종 처분될 때까지 가장 많이 버려지는 폐기물은 종이다. 두루마리 휴지는 변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무가치는 지하철역에 버려지고, 전자메일이나 웹사이트를 출력한 인쇄물은 한 번 읽혀진 후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사무실에서 프린트하고 복사한 종이의 45퍼센트는 프린터와 복사기에서 나온 바로 그날 쓰레기통으로 던져지고, 광고지나 전단, 소식지 등 유인물을 집으로 가져오면 제대로 읽지도 않고 버린다. 잡지에 사용된 종이의 75퍼센트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한 채 창고나 가판대에 쌓여 있다가 폐기된다. 쓰레기통에는 소비자의 시선을 끌 목적으로 디자인된 포장지가 그득하다. 재활용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함이 출현하자 종이 쓰레기를 분리해 버리면서 뿌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런데 정작 ‘종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분리수거함에는 현관 앞이나 우편함에 쌓였던 개봉도 하지 않은 우편물, 보지도 않은 광고지와 홍보물, 제대로 읽지 않은 신문 등이 매주 한 아름씩 ‘재활용’ 을 위해 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모인 종이들은 모두 어떻게 처리될까? 이 종이들은 어느 곳에서 자란 나무로 만들었을까? 종이들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잠깐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버려지는 종이 쓰레기는 전 세계에서 매년 수억 톤이 숲에서 매립지로 물밀 듯이 밀려든다. 종이 1톤을 묻으려면 매립지 3제곱미터가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일 년 동안 버려지는 종이를 다 매립하려면 대략 10억 제곱미터의 토지가 필요하고, 이 정도 규모는 런던 면적의 절반보다 많다. 그런데도 전 세계의 폐지 재활용 비율은 50퍼센트 정도에 머문다. 폐지를 수거한 뒤 다시 분류해 재활용 공장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갖춘 곳은 독일의 일부 도시를 포함해 몇 군데에 불과하다. 일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종이는 3억3,500만 톤에 달한다. 지난 40년간 4배나 극적으로 증가했으며, 하루 소비량은 100만 톤에 육박한다. 복사지 100만 톤을 한 줄로 이으면 적도를 1,500번이나 두를 수 있고, 같은 양의 두루마리 휴지를 한 줄로 이으면 달까지 200번이나 왕복할 수 있다. 종이 소비는 부자나라, 가난한 나라 사이에 격차가 크다. 2005년에 조사된 각국의 1인당 연평균 종이 소비량을 비교하면, 미국은 1인당 297킬로그램을 소비하고, 핀란드는 그보다 더 많은 1인당 324킬로그램 이상 소비한다. 고작 30그램에 지나지 않는 소말리아보다 1만 배가 넘는 수치다. 30그램이면 A4 용지 네 장에 불과하다. 라오스와 영국을 비교하면, 라오스의 연간 1인당 소비량인 560그램은 영국인 한 사람이 하루에 소비하는 양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생지는 나무로 종이를 만들거나 폐지를 매립할 때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런가?

1998년 미국에서 ‘페이퍼태스크포스’ 라고 불리는 규모가 큰 연구가 진행되었다. 학자, 환경보호운동가, 대기업이 참여했으며, 제지회사, 산림관리, 매립지, 소각장, 재생지 공장으로부터 자료를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이의 ‘생명 주기 분석(life-cycle analysis)’ 을 했다. 즉 한 장의 종이가 생산되어 처분되는 과정 - 재활용 종이의 경우는 재생되는 과정까지 -에서 사용된 원료, 소비된 에너지, 쓰레기, 배출 가스의 양, 기타 영향들을 계산한 것이다. 연구는 재활용 종이가 에너지를 훨씬 덜 소비한다는 것을 논박의 여지없이 증명했다. 어떤 종이를 재활용하느냐에 따라 6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에서 에너지가 절약되었고, 물 소비량도 반 이상 줄었으며, 온실가스도 훨씬 적었고, 유독 화학물질도 미량 배출되었다. 모든 면에서 나무로 종이를 만드는 것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었다. 종이를 다섯 차례 재활용하면 숲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15배까지 줄일 수 있다. 종이를 잘 다루기만 하면 아홉 번도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유럽에서 재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축에 드는 독일에서도 평균 두 차례 재활용하고 처분한다. 재활용 종이제품을 구매해야만 재활용이 더 많이 이뤄지고, 종이 섬유의 생명 주기를 연장시킬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의 대부분은 상품을 구매할 때 함께 팔려 온다. 판매 기업이 소비자에게 사 준 종이인 것이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종이를 만든 통장을

받는다.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냅킨이 제공된다. 가게의 종이컵도, 포장된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



다. 지금의 종이 소비 문화를 좀 더 빨리 바꿔 나가려면 기업의 종이 구매 담당자와 소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

다. 대형 잡지사, 출판사, 카탈로그 제작사, 정부, 은행 등 종이를 대량 구매하는 곳에서는 재생펄프로 만든 종이를 구매할지, 소비자는 화장실에서 나무를 벌목해 만든 휴지를 쓸지, 100퍼센트 재생 휴지를 쓸지는 선택에 달렸다. 또한 윤리적인 소비와 더불어 윤리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제지산업은 전 세계의 숲에서 원료를 얻고, 전 세계에 펄프공장과 종이공장을 세우고, 전 세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움직이고 있다. 소비자는 구입하려는 종이가 어느 곳의 나무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알 권리가 있다. 제지산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기업의 사업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고, 금융계는 자금을 움직일 때 기업의 사회·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분명히 요구해 기업들이 환경인증마크를 내세우며 문제를 가리려고 하지 않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이러한 관심은 종이를 공급하는 제지업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계획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소비자가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미 만들어진 나무농장은 나무를 베 뒤 그곳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계속 단일 수종의 나무를 심어 한꺼번에 벌목할 것인지, 지속 가능한 숲이 되도록 자생하는 나무를 다양하게 심어 매년 일부를 벌목하면서도 숲이 유지되도록 지혜를 모을 것인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분리수거의 방법, 수거한 폐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 등 우리 사회가 다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리가 왜 종이 절약을 사회적 담론의 중심에 놓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다. 종이의 편리함에서 이제는 종이를 절약하면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말 그대로 자연 친화적인 종이, 윤리적인 종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종이로 사라지는 숲 이야기」, 맨디 하기스' 에서 발췌

제4회 자카르타 학력경시대회 시행요강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에서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011학년도 제4회 자카르타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고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 및 접수처 : 2011년 4월 28일(목) ~ 5월 11일(수),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

☞ 응시료 및 준비물 : 과목당 30만 Rp,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시험일 및 시험시간

시	험	일	시	간	비	고
5.14(토)	국어		08:30~10:00	(90분)	시험시작 30분 전에 도착, 매 교시마다 시험 10분전 입실	
	논술		10:40~12:40	(120분)		
5.15(일)	수학		08:30~10:30	(120분)		
	영어		11:10~12:10	(60분)		

☞ 응시자격 :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 국내 · 외 대학 진학희망자
- 한국 학교 및 외국계 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자(재외국민)

☞ 수상자 발표일 : 2011년 6월 10일(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 시상내역

상	명	인	원	시	상	내	역				
대	상	과	목	별	1	명	상	장	및	부	상
최	우	수	상		과	목	별	2	명		"
우	수	상			과	목	별	3	명		"
장	려	상			과	목	별	5	명		"

☞ 응시자 시상 및 특전 : 본 대회는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되는 전국 규모의 경시대회로 수상실적은 대학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수상경력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한 자료 및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수학 특기적 재능 보유 증빙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유의 사항

- 수험표는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 감독관에게 반드시 신분증(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TEL 844-4958) 및 고등부교무실(TEL 844-4958 EXT20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JIKS 홈페이지(<http://www.jik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관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후 원 : 재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국제교육진흥원,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 인니지회, KOTRA(인니), KOICA, 재인니한인회,
재인니부인회, LG전자,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코린도그룹



2010년 8월 Taman Prasasti 에서

가 족

인도네시아의 혼한 풍경 중 하나인
빨래줄에 널린形形色색의 빨래들...

마치 가족들이 모여 있는 듯 합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 행복했던
어린시절

햇빛이 부서지던
마당 한 칸

양지바른 곳
빨래줄에 걸려있던

가족들의 희망...

<사진과 글 : 정무송 / 한인뉴스편집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전택수 유네스코사무총장과 함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 유네스코 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2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 등재훈련 워크숍’이 3월 11일-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다. 워크숍에는 대부분 자국 기록유산을 아직 세계기록유산목록에 등재하지 못한 방글라데시, 부탄, 피지,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아일랜드, 동티모르 등 아태지역 10개국이 참가했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소중한 기록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1992년부터 ‘세계의 기록사업(Memory of the World)’을 진행해오고 있다. 아태지역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 42건의 기록유산이 본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이번 워크숍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찾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택수 사무총장과 한인회 조규철 수석부회장이 자리를 같이 했다.

◆ 유네스코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국가 간의 조정을 위해 45년 8월 결성된 단체가 유엔이다. 그러나 전쟁은 인간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유네스코라는 단체가 필요했다. 개개인의 정신에서부터 평화의 장벽을 세워야 세계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해 그해 11월에 교육, 과학, 문화, 인문사회과학, 정보통신 등 5개 분야에서 국제간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평화를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학자와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문화가 인류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일찍부터 문화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 문화정책의 선진화, 예술교육의 발전을 위



답소를 나누는 조규철 한인회수석부회장(좌)과 전택수 유네스코사무총장(우)

한 사업들을 실시했다.

유네스코는 또한 인류의 소중한 유산 및 기억들을 보존하기 위해 세계 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을 지정하는 사업과 함께 위험에 처한 문화 유산을 보호·복원하는 사업, 그리고 약탈 혹은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1950년에 가입하여 다각적인 활동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 금번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신 목적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유산의 종류에는 세계유산(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복합유산), 세계기록유산, 세계무형유산의 3종류가 있다. 그중에서 세계기록유산이란 각 나라에서 인간의 삶에 영향력이 큰 훌륭한 체험들이 기록물로 남겨진 것을 말한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42종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어 있다. 아시아지역 가입 회원국 4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훈민정음, 조선의궤, 팔만대장경, 동의보감 등 7종이나 등재되어 있다. 우리나라 가장 많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중국에는 불과 5종, 인도네시아에는 기록유산이 하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자긍심을 가질만하다. 더욱이 약 30개 국가는 기록유산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그들은 실제로 세계기록유산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닝 워크숍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참가국들을 불러 우리나라에서 워크숍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불러오고자 하는 나라의 중간쯤에서 시행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3박 4일간 인도네시아에서 워크숍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오게 되었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몇 개국이 선정될지 알 수 없으나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 이런 워크숍을 실시한 것은 몇 년이나 되었다. 3년째 이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시작했는데, 2회째부터는 다른 나라들을 불러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을 돕고 있다. 참가국들에게 지원서를 만들게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확인작업을 한다. 지난번 워크숍의 결과로 라오스, 베트남, 몽고 등 3개국이 이번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사전 심사를 거쳐 10개국으로부터 지원서를 받았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문화유산 등재를 요원한 일로 어렵게만 생각하던 국가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 기록유산은 첨단시대로 갈수록 중요한 유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이다. 산업화시대에서는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시대였는데, 앞으로는 기록유산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21세기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성의 시대이며 모든 상품이 감성과 관계된다. 창의성이란 내 개인의 다양한 체험과 선조들의 과거 체험의 혼합, 즉 기억의 축적에 의해서 태어난 상상력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 체험의 기록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 유네스코 기구 안에서도 한국이 이런 워크숍을 주체하는 것은 매우 독창적인 활동이라고 생각되는데.

회원국으로서 한국이 제일 크다. 회원 수도 많고 활동도 가장 많이 한다. 처음 유엔에서 발언권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나라는 유네스코에서 외교활동을 많이 했다. 그때부터 한국에서는 유네스코가 제일 중요한 외교 창구였다. 그러다보니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본이 된 것이다. 일본에서도 한국위원회를 본받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한국을 모방하자는 분위기가 한창이다. 우리나라가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나라가 되어 다른 나라를 지원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문화부국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만하다.



★ 세계기록유산이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은 유네스코에서 기록물에 대해 제정하는 문화유산이다. 국제자문위원회가 심사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승인하는 형식으로 선정된다. 국제자문위원회 회의는 1997년부터 매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 등재 기준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적 가치의 여부가 있다. 세계적 가치를 충족하려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변화의 시기를 반영하는 시간성 (Time)
2. 역사발전에 기여한 장소나 지역관련 정보 (Place)
3. 역사에 기여한 개인의 업적 (People)
4. 세계사의 주요 주제 (Subject/Theme)
5. 형태나 스타일에 있어 표본 (Form and Style)
6.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중요성

(Social/Spiritual/Community Significance)

그 외의 기준에는 신빙성, 유일성과 영향력 등이 있으며 추가기준으로는 완성도 또는 완전성에 있어 탁월한 자료, 독특하거나 희귀한 자료 등이 있다.

★ 등재 내용

2009년 현재 83개국 193점이 지정되어 있으며 안테르펜의 원고 & 편지(덴마크), 베토벤 - 교향곡 9번 라단조(독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러시아 광고지(러시아), 페니키아 문자(레바논), 카리비안의 노예목록유산(바베이도스), 오즈의 마법사(미국), 1215년의 마그나카르타(영국), 고딕 양식 건물의 스케치 수집물들(오스트레일리아), 리그 베다(인도), 쇼팽의 걸작들(폴란드), 뤼미에의 영화(프랑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록물이 등재되어 있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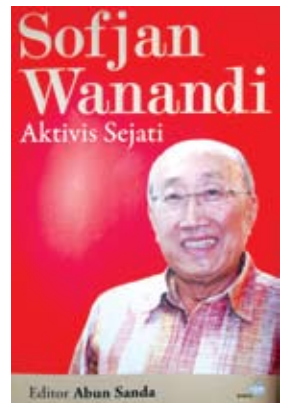
★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7종류의 세계기록유산을 가지고 있다.

- 대한민국훈민정음 해례본 - 1997년 10월 지정
- 조선왕조실록 - 1997년 10월 지정
- 직지심체요절 하권 - 2001년 9월 지정. 프랑스 소장
- 승정원일기 - 2001년 9월 지정
- 팔만대장경 - 2007년 6월 지정
- 조선 의례 - 2007년 6월 지정. 프랑스, 일본 일부 소장
- 동의보감 - 2009년 7월 31일 지정

중국은 5종, 일본은 현재까지 한 점도 등재된 유산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기록문화 보존의식과 수준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만하다.

진정한 활동가 · 사업가 · 지한파 소피안 와난디

신 성 철 (데일리코리아 인도네시아 대표)
dailykoreaindonesia@gmail.com



고희를 맞은 소피안 와난디 인도네시아경총 (APINDO) 회장의 힘있는 목소리와 자세, 거침없이 쏟아내는 쓴소리에서 아직도 청년의 기백이 살아 있고 선한 눈빛과 편안한 인상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느끼게 한다. 중국계로 서부수마트라주 정당 출신인 소피안 회장은 최근 ‘진정한 활동가’ 라는 128인의 국내외 주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인사 및 그의 가족이 자신을 평가한 평전을 출간하면서 파란만장했던 삶을 뒤돌아 봤다.

유력 일간지 콤파스의 원로 언론인 아분 산다가 편집한 이 평전에는 외국인 공동체로서는 가장 많은 3인의 한국인 즉 김호영 전 대사, 승은호 코린도 회장 및 송창근 한인회 수석부회장이 기고해 그와 한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증했다. 소피안의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소 독특하고 드물다. 그는 서부수마트라주 작은 마을 사와룬포라에 거주하던 중국인 부모에게서 태어

나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영향력 있는 사업가로 성장한 소피안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Kadin)에서 여러 해 동안 활동했고, 현



재는 경총 회장직을 맡고 있다.

소피안은 뛰어난 친화력으로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업가들의 대변자가 됐고 특히 인도네시아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기업인들과 정부 사이를 잘 중재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간 교역을 늘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1990년 말 하비비 정권과 갈등으로 해외 떠돌이 생활을 한 적도 있지만, 수까르노 초대 대통령부터 수하르토, 압두라만 와히드, 메가와티 수까르노뽀뜨리,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까지 모든 인도네시아 대통령들 앞에서 가슴을 펴고 당당히 설 수 있었던 인물이 소피안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이 책은 증언했다. 소피안은 사업가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활동가로 인도네시아에서 독특한 위치를 갖는 인물이다. 1960년대 초에 인도네시아대학교(UI)에 입학한 후 그는 국정이 극도로 혼란한 시기인 1965년에 학생운동에 깊이 참여한다. 1960년대 중반 공산주의자들이 부상하던 시기에 많은 중국인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릴까 봐 집에 숨어있는 쪽을 택했으나, 소피안은 학생운동의 선두에 서서 수까르노 정부를 비판했다고 당시 학생운동단체서 함께 활동했던 66년 동기생들이 회고했다. 그해 930사태라 불리는 공산쿠데타를 성공적으로진압한 수하르토 소장에 의해 수까르노 초대 대통령이 해야하는 등 인도네시아는 격동기를 맞는다. 수하르토가 정권을 잡은 신질서 시대 초기에 소피안은 수하르토의 측근인 알리 무르도뽀와 수조노 후마르다니와의 친분으로 정계에 입문하게 된다. 그는 수하르토 정부의 싱크탱크라 불리던 전략국제연구소 (CSIS)에 참여,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소피안은 정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평으로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전 재무장관이었으며 현재 세계은행 국장인 스티리 물야니 인드라와피도 소피안의 혹

평에 상처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다. 유도요노 정부에서 개혁의 선봉에 섰던 스리 몰야니는 “소피안의 쓴소리는 종종 나를 복돋우기보다는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우리(재무부)가 하는 일이 모두 옳지 않고 우리의 노력은 항상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비판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동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1998년 민주화운동을 주도했고 날카로운 정치 비평가로 유명한 아미엔 라이스 전 국민회의 의장은 “소피안이 진정한 애국자이자 민족주의자”라고 호평했다. 폴 윌포 워츠 전 인니 주재 미국대사는 “그가 수카르노, 수하르토, 하비비, 메가와티 수카르노뿌트리 및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등 모든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용기 있는 인물인지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습 깔라 전 부통령은 소피안을 진정한 친구라고 기술했다. “그는 바쁜 사업가임에도 수 주일씩 시간을 내서 해외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를 문병했다”며 “소피안은 학생운동을 하던 1966년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는 벗이다”라고 회고했다.

소피안은 가정에서는 평범한 가장이다. 그의 어머니 까뜨리나 스피아디는 어릴 시절의 소피안은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구슬치기를 좋아해서 집에서 숙제를 시키기가 어려웠다고 돌아봤다. 소피안의 맏형 유

습 와난디는 엄한 아버지에 대해 회상하면서, “형제 중 한 사람만 잘못해도, 아버지는 모두를 혼내셨다”며 “아들이 셋이었는데 나나 윌리엄(소피안의 둘째형)이 잘못을 해도 막내인 소피안까지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어린 소피안이 항상 안스러웠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소피안을 삼형제 중에서 가장 강하게 만들었다”고 소회했다.

100여명의 기고자 가운데 한국인도 눈에 띈다. 소피안을 ‘별 가운데 별’이라고 표현한 김호영 전 대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서울 G20 정상회담에 참여해 글로벌 경제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1970년대 초부터 친분을 쌓아온 승은호 한인회장은 소피안에 대해, 선하고 정열적이며 친절한 사람으로 좋은 친구라고 표현했고, 1997년 혼란기에 조언을 구하기 위한 만남을 갖다가 친해졌다는 송창근 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소피안을 ‘세계의 대부’라 묘사했다.

이 평전에 글을 올린 사람들은 한결같이 소피안이 변함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용기를 간직한 건강한 모습으로 더 나은 인도네시아를 만들기 위해 분투하길 바랐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인니 테러정세 관련 안내문

1. 최근 자카르타에서 다수의 폭탄소포가 배달되어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우리 교민들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플라자 스나얀 쇼핑몰에도 폭탄테러 위협이 제기되는 등 인도네시아내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교민 여러분께서는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고도의 경각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외국인 빈번 출입시설(외국계 유명호텔, 쇼핑몰, 레스토랑 등) 방문 자제 및 발송인 미상 소포물 개봉 유의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김한규 영사, Tel : 021-2992-3030, 당직폰 : 0811-852-446



김호영 대사 임기 마치고 귀국

한-인니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교민사회의 모든 분야를 총괄하며 관계 증진 및 화합을 위해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늘 교민들 가까이에서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김호영 대사가, “부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일들을 다 실행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공인의 신분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 제 도리를 지키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라며 떠나보내기 아쉬워하는 교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지난 25일 귀국길에 올랐다.

한인회와의 송별식에서 “가족을 남겨두고 떠나는 마음이다. 본국에 돌아가면 인사모에 가입해 인니에서의 생활을 잊지 않고, 늘 함께 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며 인니 교민사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던 김호영 대사는 한인문화연구원에서 전달하는 감사패를 받으며, “나는 떠나지만 여러분은 남아 있을 사람들이니 이 땅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모습을 심어달라” 는 당부로 이국땅에 살고 있는 교민 각자 역할의 중요함을 새삼 일깨웠다. 교민들에 의해 ‘문화대사’ 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문화예술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였던 김호영 대사가 임기 중에 추진했던 문화회관은 4월 하순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

4만 교민사회의 권익과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양국 교류 협력에 힘써왔던, 소탈하고 검박한 모습으로 교민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서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김호영 대사를 보내는 교민들은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정으로 전송하는 모습이었다.



교민사회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진 : 김호영 주인니한국대사 (2008. 6-2011. 3.)





“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과분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존경하는 한인 여러분!

이제 저는 이 곳 인도네시아에서 대사의 소임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그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과분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유수와 같은 세월이라지만 하늘에 해가 걸려있는 시간이 비슷하고 기온의 변화가 적어서 인지 인도네시아에서의 세월은 한국보다 더 빨리 흐르는 듯합니다. 이 느낌을 미리 알았더라면 2년 9개월의 시간을 좀 더 쪼개어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더 많이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큼니다.

2008년 6월 17일 자카르타에 첫 발을 디디던 그때의 설레임과 걱정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이제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먼 곳으로 떠나는 기분입니다.

대사로서 한·인니 양국 국민들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

도록 나름대로 노력했던 일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재임기간중 양국 정상이 한국과 인니를 서로 방문하시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카르타, 수라바야, 동·중부 깔리만탄, 찌카랑, 쪄레곤, 족자카르타, 땅그랑, 반둥, 스마랑, 바탐, 수까부미, 수방, 발리 등지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치시는 우리 기업인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감동과 존경심을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또한 한·인니 문화주간 행사 등을 통하여 현지 주민들과 외교사절들에게 우리의 고유문화와 한국인들의 삶, 사상과 열정을 알렸다는 자긍심도 가져 봤습니다.

하지만, 부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일들을 다 실행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공인의 신분을 너무 앞세

우다 보니 제 도리를 지키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제 후임으로 부임하는 김영선 대사는 예의 바르고 사
교적이며 능력이 출중한 외교관입니다. 여러분을 위
해 혼신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저에게 보내 주셨던 것
보다 더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인 여러분!

우리 한인사회는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외
국인 커뮤니티입니다만, 경제교류가 앞으로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더 많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진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나날이 커질 것입니다.
이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더욱 합심하여 지금보다 더
인화단결하고 상생하는 한인사회를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현지인들로부터도 품격 있고 존경받는
한인사회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한인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인사
회를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봉사하고 계
신 승은호 회장님을 비롯한 한인회 간부님들과 지역
한인회 회장님들, 그리고 민주평통, 월드옥타, 한인에
총 등 각종 한인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그 동안
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나 부득
이 지면을 통해 이임인사를 드리게 됨을 해량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늘 건안하시고 가내에 좋은 일이 많아서 온 가족이 즐
거움과 기쁨 속에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3월 23일
김호영 대사 배상



Semoga Sehat Selalu
& Sampai Berjumpa Lagi!



>>> 코린도장학생, 그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2세대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고 싶어요."
 "슈네스코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학교수가 되고 싶어요."
 "한국과 인니를 잇는 유능한 통역관이 되고 싶어요."

3월 12일 토요일, 코린도장학재단(재단이사장 정무웅) 사무실. 정무웅재단이사장의 주선으로 4명의 코린도장학생을 만났다. 2명은 이미 직장인이고, 2명은 한국유학에서 돌아와 UI 한국어학과에서 남은 공부를 하고 있다. 장학생 4명과 3명의 UI 한국어과 학생이 함께 자리한 재단사무실은 젊고 활기에 넘쳤다. 모두 한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실력파들이라 한국어로 이야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한국 사랑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오래 전부터 알았던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모두들 한국을 경험한 학생들이니 한국에 대한 소감부터 물었다. 한국에서 풍물패동아리에 들어 농활도 다녀왔고, 한국음식을 아주 좋아한다고 앙그라이니(Anggraini)가 제일 먼저 대답하자,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예의 바른 한국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다고 이네즈(Inez)가 뒤를 잇는다. 오늘 모인 장학생 중에 유일한 남학생(현재는 졸업을 하고 대학원 진학을 꿈꾸고 있다) 루슬리(Rusli)는 한국 사람은 정이 많은 사람들이었으며, 한국사회는 빈부격차가 커 보이지 않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루슬리는 한국어 문법이 너무 어려웠으며,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연세어학당 도서관에서 영화DVD를 많이 빌려다봤다고 덧붙였다.

모두 한목소리로 한국의 겨울이 너무 추웠지만, 눈이 신기했다고 말한다. 이네즈는 책갈피에 꽂아둔 단풍잎을 내보이며 가을을 좋아한다고 했다. 소녀의 감성이 물씬 느껴졌다. 은행나무는 어떠냐고 묻자 냄새가 나서 싫다고... 모두 함께 웃었다.

남편이나 아내가 될 사람이 한국사람이라면? 모두들 좋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 이네즈는 좋기는 한데, 말이 잘 안 돼서 속마음을 모두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고 걱정을 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 속 얘기는 눈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해주자 머리를 끄덕인다... 다시 웃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버렸다. 마지막으로 코린도장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달라진 자신의 모습과 장래희망을 물어보았다. 이번에도 앙그라이니가 가장 먼저 대답했다. "장학생이 된 덕분에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한국친구도 많이 사귀어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 돌아와 학업을 계속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고 하며, 한국학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이네즈의 꿈은 한국과 인니를 오가는 유능한 통역관, 루슬리의 꿈은 유네스코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것, 이르마(Irma)의 꿈은 2세대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것(이르마는 2003년에 이미 한국유학을 다녀온 코린도장학생 중에 가장 고참이다. 지금은 결혼하여 9달 된 아이가 있으며 인니기업가협회에 근무한다.) 한 명 한 명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꿈을 이룬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라 뒤통이 그려졌다.

코린도 장학재단은 1997년 1월29일에 설립되어 1997년 7월 18일 인도네시아 문교부와 장학사업 협력약정을 맺었다. 1998년 1월 인도네시아 3개 대학교에 장학금 4천 5백만 루피아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UI(인도네시아대학교), ITB(인도네시아만둥공과대학교) 등 6개 대학 534명의 장학생에게 12억 6천 8백만 루피아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2003년부터는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을 한국의 대학교와 대학원 과정에 유학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를 다녀온 학생이 8명, 올해 초에 또 1명이 유학을 떠났으며 세종대학교 대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이 14명이나 된다.



“코린도장학재단은 코린도그룹에서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의지로 설립되었다. 재능은 있지만 꿈을 펼치기 어려운 젊은 인재들을 사회 각 방면에서 선별하여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젊은 이들이 자기발전은 물론 한국과 인니 양국의 관계 발전에 기여할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점차 다양하고 확대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 장학재단의 취지를 밝힌 정무웅 재단이사장은 “장학생들의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며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민간외교관으로써 선두주자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고 장학생들에게 당부했다.

밝은 청사진을 간직한 젊은이들이 있고,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코린도장학재단이 있어 세상은 젊고 활기차게 유지된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다른 한국기업에도 젊은 인재들이 마음껏 공부하여 자신의 재능을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주었으면 좋겠다. 오늘 만난 젊은이들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그들이 흘릴 값진 땀방울을 기대한다.

참석자

- 정무웅 코린도장학재단이사장
- Irma Ekawati, 2003년 장학생, UI 졸업, 인니기업가협회 근무
- Rusli Halim, 2007년 장학생, UI 졸업, Mercy Corps 근무
- Anggraini Widiarsari, 2009년 장학생, UI 4학년
- Inez Yorisya Kemala, 2010년 장학생, UI 4학년
- UI 3학년 재학생, 3명

<취재 : 박정자 한인뉴스편집장>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김 전 국방장관은 23일-25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국제국방대화(International Defense Dialogue)에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22일에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안보조정장관을 차례로 만나 국산 고등훈련기(T-50) 수출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현안을 집중적으로

로 논의하고, 23일에는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 공감대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머무는 동안 태국, 말레이시아 등 4~5개국 국방장관들과도 회의를 열어 국방 교류 및 방산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회의에 김관진 국방장관의 특사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안보조정장관을 차례로 만나 T-50 수출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방산 협력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우호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김 전 장관은 공식일정에 앞서 한인회 승은호 회장, 김호영 대사와 만나 인니 교민사회의 소식을 듣고 답소를 나누었다.

천안함 1주기 추모 및 결의대회

아, 아! 그날이여,

천안함, 46명의 순국용사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의대회가 피격 1주기를 하루 앞둔 3월 25일 한인회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한인회, 민주평통, 월드옥타, 자유총연맹 등 주요 한인단체들이 모두 참석하여 한인 교민사회의 결집된 안보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나라를 위해 순국한 꽃 같은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 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정부가 철통 안보태세를 갖추어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철저하게 응징할 것을 요구한다.
- 재인니교민사회는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및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 국내 중북세력의 국론분열 조장과 여론호도 등 이적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우리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분개하며, 일체의 대북지원에 반대한다.



향연 - 분재 · 수석전시회



PAMERAN NASIONAL BONSAI & SUISEKI INDONESIA

오랜 세월 풍상을 함께 겪으며 성장한 분재가 자연과 사람의 혼이 담긴 합작품이라면, 수석은 우주의 시간과 환경이 빚어낸 자연의 초월적인 암호문이다. 분재와 수석은 모방과 창조라는 서로 다른 태생을 갖고 있지만, 잠시 숨을 멈추고 사색하게 만든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여 한국의 수석과 분재를 소개시켰으며, 곧이어 5월에는 북경을 거쳐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인니수석협회와 평양수석협회의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또한 2003년에는 북한의 금강산 온정리의 김정숙휴양소에서 남북분단 53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수석인’의 모임을 성사시킨 바 있다.

인도네시아분재수석협회에서 주최한 ‘분재 · 수석 전시회’가 3월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간다리아 시티에서 열렸다. 6개국에서 10명의 분재, 수석 애호가들이 출품한 작품은 모두 685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송재선 자카르타수석협회 회장과 강희중 색소폰동호회 회장이 수석을 출품해 송재선 회장의 ‘한라산의 백록담’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자카르타에서 분재와 수석을 소재로 전시회를 연 것은 이번이 8번째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니 사람들과 외국인들의 관람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색소폰동호회의 회원이기도 한 송재선 씨와 강희

중 씨의 색소폰연주에 맞춰 즉석에서 노래를 하는 관람자들이 어우러지며 전시기간 틈틈이 미니콘서트가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자카르타수석분재협회는 25년 전에 결성된 한국인 단체로 현재 2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2002년 4월 서울월드컵개최기념행사인 ‘세계 수석 · 분재 모임’에 인니 수석인 23명을 동반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한인단체 업무협약

“고국 가시는 길에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3월 17일 오전 10시 문화회관에서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있었다. 이 협약은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조한익)와 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승은호), 월드옥타인도네시아(회장 최동목)의 협약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3개 단체의 관계자들과 대사관의 김도형 노무관, 한국부인회와 코인에서도 함께 참석했다. 이 협약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한인동포 건강검진 우대수가 적용 및 결과 상담, 유소견자에 대한 치료 연계 서비스, 각종 정보 자료서비스를 한인회에 지원하고, 한인회는 한인동포 건강검진협회와 연계하여 건강검진 홍보물 및 건강 정보자료를 비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검진기관 최초로 ‘건강증진병원’으로 공식 인증을 받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이미 30년의 노하우로 스텝과 장비면에서 세계적으로 월등한 수준을 인정받는 단체로 한국에는 15개 시도에 건강증진위원을 두고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과 보건교육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26개국 한인회와 연계하여 건강증진서비스의 폭을 확대

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인도네시아에 오기 전에 싱가포르(14일), 말레이시아(16일)에서 지역한인회와 이와 같은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인회 승은호 회장은 건강한 자는 모든 희망을 안고, 희망을 가진 자는 모든 꿈을 이룬다’는 아라비아속담을 인용하여 “고민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고 조기치료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협회의 30년 노하우로 인니동포들의 건강을 관리해주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유대와 관계발전을 바란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월드옥타의 최동목 회장 또한 지속적인 관계발전을 원하며 “63개국 113지회가 있는 전 세계 월드옥타본부와도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건강관리협회 조한익 회장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수시로 우리들 자신을 점검하고 있다.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의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례했다.

한국건강검진협회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홈페이지(www.medicheck.or.kr)에서 해외동포란 -> ‘관련지부 선택’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검진을 받을 때보다 2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질병이 확인된 후엔 적절한 병원을 소개받아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신청자는 협회와 상의하여 간단한 기본검진부터 MRI종합검진까지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5월호에>

이번 협약으로 인니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도 고국을 방문하였을 때 언제든지 마음 놓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 15개 지역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용무도,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



지난 3월 1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경호실과 용무도 협회는 ‘인도네시아대통령경호실 용무도 승단시험’에 한인사회 지도층인사를 초청해 용무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 자리에는 한인회 신기엽 수석부회장, 한인상공회의소 송창근 수석부회장, 월드옥타본부 김우재 이사장, 월드옥타 양영연 고문, 자유총연맹 인니지부 박동희 회장, 민주평통 김광현 인니지회장, 김동호 포스코 법인장, 정병화 롯데마트 법인장, 최성욱 KCC 법인장과 배응식 경승무역 법인장, 박영수 KTV 대표 등 후원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승단시험에 앞서 가진 기념식에서 김병천 총재는

“여러분들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경호 요원들이다. 앞으로 용무도를 열심히 수련하여 경호실 위상을 세계에 떨치기를 바란다” 며 오늘 이 자리를 갖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와리스 장군과 부대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한인상공회의소 송창근 수석부회장은 “용무도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한인사회와 인니군 부를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한인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격려했다

한편, 대통령 경호실 와리스 장군은 용무도 발전을 위한 후원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인도네시아 용무도는 다음달 4월에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용무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전지훈련도 계획하고 있다.

예총, 신임회장 한상재(칼럼니스트)씨 선출

한인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가 그동안의 침체를 벗고 새롭게 활동을 다짐했다. 지난 3월 15일 한인회문화회관에서 회합을 가진 예총임원들은 한상재 한인문인협회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고 나아갈 방향을 의논했다. 전체 회장단 구성은 다음 회합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망가 그동, 맛이 어때요?



인도네시아네덜란드협회(INA : Indonesia Netherlands Association)가 망고그동(Mangga gedong)을 알리기 위해 한인회 문화회관을 찾아왔다. 안선근 교수의 인니어강좌교실에서 수강생들에게 망고그동의 맛을 선보이며 설문지를 받은 마케팅매니저 Rara Dewayanti 씨는 농림부의 협조를 받아 망가반응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며 맛이 좋으면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선정하여 정착시키고 한국으로도 수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망가그동은 찌레본산을 최고의 품종으로 알아주는데, 씨가 큰 것이 단점인 반면에 껍질이 얇고 달콤새콤한 맛과 다른 품종에 비해 향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KOCHAM, 대정부 및 대외 교류 활동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 재계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인니 주재 외국커뮤니티와도 교류 다각화

한인기업인들의 대표단체로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는 KOCHAM이 지난 3월 25일 KAPUK에서 그 교류 영역을 한층 다각화 하는 모임을 가졌다. 지난 해부터 6개월마다 정례 친교 모임을 갖고 JAKARTA JAPAN CLUB과 한일 기업인 간 돈독한 교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는 KOCHAM의 송창근 수석 부회장은 지난 3월 2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상업무 마리 빵에스투 장관과 경제인총연합회 (APINDO)의 소피아안 와난디 회장, 그리고 주 인도네시아 중국대사관의 장 쉰예 (Zhang Qiyue) 대사를 초청해 친교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현재 외국자본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날로 확대일로에 있으며 특히 중국 베트남의 여러가지 원가상승요인으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의 투자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노사정 3자 회담에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인니 경총 APINDO의 역할 또한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APINDO는 올해 초인 지난 1월 31일 창립 59주년을 맞이한 기념행사에서 전·현직 부통령을 비롯한 각료, 각국 대표, 국내외 재계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재정비된 임원진의 임명식을 성대히 가졌다. 올해로 만 70세인 소피아안 와난디 회장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며 오는 2013년까지 APINDO 회장직을 계속해서 맡게 되었다.



왼쪽부터> 소피아안 와난디 경제인총연합회 회장, 마리 빵에스투 상업무장관, 장 쉰예 중국대사, 송창근 코참 수석부회장

이 날 모임에서 마리 상업무 장관은 지난 번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 했을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특사단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했으며, 방문 기간 중 한국정부의 따듯한 배려로 양국간의 인프라 교류를 위해 다시 한번 한 인니 양국이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다며 한국 측에 대해 각별한 고마움을 표명했다.

주 인도네시아 중국대사관의 장 쉰예 대사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탈한 대화로 시종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었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으로 7년간 근무하여 중국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부 주요 인사이다. 그녀가 부임할 당시

채 500개가 되지 않던 중국업체가 최근 2년간 400개 이상 증가하여 현재는 인도네시아의 중국 사업체가 900개가 넘도록 만든 실력가이기도 하다.

네 사람은 운동을 같이 하며 인도네시아 정치 경제 현안 및 양국관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KOCHAM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대정부 활동을 통해 인니 사업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한인 기업인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 중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각국 정부 및 상공인들과 보다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교류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KOCHAM 조찬 간담회 등을 통해 국내외 인사와 한인 기업인간의 네트워크의 기회도 계속 마련해 갈 계획이다.

<<한국어 강사 모집>>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에서는 인도네시아인들과 현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칠 유능한 한국어 강사(한국인)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시간강사 약간 명
- 담당업무 : 인도네시아인 및 현지 외국인 대상 한국어 강의
- 응시자격
 - 인도네시아 지역 거주 한국인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강의시 인도네시아어로 설명 가능한 수준의 현지어 구사자 우대
 - 한국어강사 경력자 또는 한국어교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 연령제한 없음
-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 가. 전형방법
 - ① 서류심사 ② 면접심사
 - 나. 제출서류
 - 이력서 (자유 형식)
 - 자기소개서 (A4지 3매 이내) ※ 경력 중심으로 기술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서류 통과자에 한함)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4. 5.~ 4. 19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ongryet@hotmail.com)
 - ※ 제목을 “한국어강사지원+성명”으로 작성하여 제출
 - ※ 증명서 및 자격증 등은 스캔 후 첨부파일로 송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1. 4. 21.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2011. 4. 25.
 - 최종합격자 발표: 2011. 4. 29.
(2011.5.23. 개강, 12주 프로그램)

※ 이력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기재 요망.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

0812-101-2158 김현기 문화원장

081-616-83931 당종례 부원장

Equity Tower 17th Fl, SCBD, Lot 9,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자카르타, 한국문화 확산의 새로운 기지로 떠오르다

한 국대사관은 오는 4월 20일경 자카르타 상업 중심지인 SCBD 지역에 있는 Equity Tower 17층에 한국문화원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우리 교민 및 현지인들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한다. 동 문화원은 연면적(공용포함) 864 제곱미터로 전시/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180석의 다목적홀, 도서관, 멀티미디어룸, 그리고 4개의 강의실로 구성될 예정이다.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은 인도네시아에서 일고 있는 한류를 재 접화하고 동남아시아에 한국문화를 전파할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 한류를 확산시킬 분위기를 조성하며 한국어 보급을 통해 현지인들의 보다 쉽게 한국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윈스톱으로 제공해 한국 정보에 목말라 있는 현지인들의 문화적 갈증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카르타 한국문화원 개설은 우리 교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이기도 하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자카르타 방문시 건의 및 그동안 대사관의 적극적인 유치노력 등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문화원 내부는 한국의 전통 창살 무늬 등을 결합해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문화강국의 이미지를 첨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직은 한창 내부 공사 중이지만 미래의 한국문화원을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리셉션 공간에는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상설전시가 가능하며, 리셉션 뒤편에는 대형 프로젝션 TV를 통해 한국문화를 종일 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내방객들을 위한 소규모 테이블, 의자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 장소에서 방문객들은 커피, 차를 마시면서 한국의 최신 문화와 전통 문화 등을 감상하게 될 것이다.

도서관에는 한국관련 국문 및 영문 서적 1,000여권이 마련될 예정이고 도서관 이용자들은 한국영화, 드라마 그리고 한류 가수들의 DVD를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직은 구비되어 있는 책과 DVD가 많지 않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보충되어 한국의 최신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윈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예정이어서 유학, 관광 등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멀티미디어룸에는 대형 TV를 통해 한국방송을 직접 시청할 수 있고 한국과 관련된 사진들을 검색해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의 최신 3D TV를 통해 한류 가수들의 영상 등을 3차원 입체로 감상할 수 있게 되어 현지인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3대의 대형 모니터를 갖춘 컴퓨터에는 온라인 게임 등이 장착될 예정이어서 IT 강국인 한국 정보통신 기술을 알리는데 크게 한 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문화원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한글강좌는 4개의 교실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대사관 측은 한국어 강좌는 교사 및 수강생 모집을 통해 오는 5월 늦으면 6월에는 개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현지인들이 많았으나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었는데 이번 한글강좌 개설이 이들에게 조그만 희망으로 다가갈 기대해 본다. 대사관은 별도 대사관 공지를 통해 자격 있는 한국어 강사진을 모집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 3회반을 기본으로 주말반 등을 편성할 예정이며 현지인들의 수요를 파악, 일과 중에도 개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원의 꽃인 다목적 홀이다. 200여 제곱미터 크기의 방에 전시 및 소규모 공연이 가능토록 꾸며져 있다. 각종 소규모 리셉션이 가능하며 정기적인 한국영화 상영회가 열릴 예정이다. 좌석은 현재 180여석이며 이동형이다. 대사관은 교민 예술인들이 이 공간을 많이 활용해주길 당부하고 있다. 특히나 젊은 예술인들이 소규모 음악회, 전시회 등을 통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대사관은 문화원 운영을 위한 자문단(가칭) 등을 구성해 모두가 함께 운영하는 문화원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교민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고 있는 지역한국문화센터 등과 연계해 한국문화를 인도네시아 전역에 알리려는 노력도 병행될 것이다. 동 문화원이 교민들의 문화적 향수를 자극하고 교민과 현지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문화융합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멋쟁이 사진사들의 이유 있는 출사 이야기

2009년 4월 사진을 좋아하고 사진에 목이 말라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째. 2009년 '1회 사진이야기 불우이웃 돕기 전시회'를 시작으로 2010년 12월에 제2회 전시회까지 바쁘고 열심히 지내왔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한센병 환자 도우미들과 그들을 위해 도움 될 일을 찾다가 전시회 수익금을 후원하고 봉사현장을 직접 돕자고 했습니다. 환자 가족들의 가족사진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아픈 이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라도 주게 될까봐 걱정하며 준비한 출사. 토요일 오후라 땅그랑 가는 도로는 많이도 밀리고 시간은 지체되고... 마음이 급하면서도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약이 발달하여 전염이 되지 않는다지만 겁도 나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공연한 것을 하는 게 아닌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나 주지 않을지, 등등.

점심을 대충대충 먹고 모임장소에서 환자 마을로 출발했습니다. 차는 밀리고 마음은 복잡하고... 휴~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모두들 어디에 계신지 두리번 두리번. 마을 한쪽에 하늘색 옷을 입은 봉사자들 함께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그들의 옷이 그리 남루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은 가족사진을 찍기 위해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나오셨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카메라를 꺼내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무표정한 표정... 쑥스러워하는 표정... '이러면 좋은 사진이 안 나오는데' 걱정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하자 그들과의 거리가 차츰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무표정한 모습은 어디로 가고 어르신들의 귀여운 포즈까지 킁킁... 그래 이거다!

열심히 셔터를 누르는 사이, 어느새 가족사진은 끝. 어? 벌써?? 끝났다는 아쉬움이 밀려오는 순간, 봉사자들이 "이제 방문 사진 찍어야 합니다. " 하며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음, 집까지 방문해야 하다니.

사진을 찍은 분들은 그나마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고, 몸이 편찮으시고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집으로 가야 합니다. 걸어서 5분 정도, 그분들과 잠시 이야기도 하고 사탕도 나누어 먹고... 아무리 봐도 그분에게 어두운 구석은 없었습니다. 웃고 떠들며 자신들의 신체도 보여 주고, 사진도 찍으라 하고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휠체를 타신 분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들 즐거운 표정으로 우리에게 사진을 허락하셨고 집까지 들어오라 하며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분들입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손과 발, 신체 구석구석 한센병의 흔적은 있지만 마음과 표정에는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며 주변 일반인들 모두 우리와 같이 느끼고 웃는 그런 순수한 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보다 우리의 표정이 더 어두웠는지 모릅니다. 어두운 방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따스한 느낌이 있는 가족 사진을 선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아닌,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써 최고의 사진을 경험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를 6년 동안 해오신 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어렵고 어두운 음지에 계신 분들에게 매주 따스한 온정으로 쌀을 나누시고 어린이들 과자를 준비 하시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그분들의 마을에 모기 약을 먼저 생각하시는 천사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5회 헤리티지 열린강좌 - 카메라의 기초원리 및 초급보정

"나쁜 사진사는 있어도 나쁜 카메라는 없다"

헤리티지 도서관에서 엄중한 재인니사진협회장의 강의로 '사진강좌'가 열렸다. 3월 26일, 토요일 오전부터 자리를 메운 청강생들은 카메라의 기본원리와 렌즈 역할, 카메라를 살 때 고려해야할 사항, 구입 후 보관요령 등 카메라에 대한 초보지식과 조리개와 셔터스피드, 화이트밸런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고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팁도 덤으로 얻을 수 있었다.

엄중한 회장은 "빛을 조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사진의 상을 만드는 빛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무조건 채우려만 하지 말고 공간을 잘 활용하라. 일반적인 틀에서 벗어나 나만의 구도를 설정할 줄 알아야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기능이 적은 카메라라고 해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좋은 사진을 얻으려면 많이 찍어볼 것을 권유했다. 강의 후반에는 수강생들의 질문이 뜨겁게 이어졌다.

이 강좌를 기획한 이수진 헤리티지 전 회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진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 많은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기획으로 교민사회에 문화를 전하는 헤리티지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이 강좌가 한 번으로는 끝을 맺을 수 없어 4월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빛을 이용한 예술이라는 말을 합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는 사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희들은 아름답게 빛나는 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습과 몸은 불편 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웃고 있는 따뜻한 웃음을 찍고 왔습니다. 적은 금액 이지만 그분들을 위해 도움의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전시회를 통해 많은 후원을 해주신 대사관 관계자 분들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이야기 엄중환



안내



Indonesian
Heritage
Society

제16회 헤리티지 열린강좌 개최

"카메라의 기초 원리 및 초급 보정" 제2탄!

강사 : 엄 중 환

시간 : 4월 30일 9시 30분부터

장소 : 플라자스나얀 내센트랄스나얀 1 건물 17층

준비물 : 카메라

사진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0816 1300 210(이수진)

국립박물관 정기 한국어투어
매월 첫 화요일 셋째주 토요일 9시 30분

인니문화의 이해와 이슬람



안선근 국립이슬람대학(UIN) 교수 특강
2011년 3월 12일, 한인회문화센터

“아잔은 마치 두리안과 같아...”

평소 조용하던 도서관이 아잔(Adzan)으로 짹 차며 코란에 응답한다. 안선근 교수의 인도네시아 문화강좌에 모인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문화를 알기 원하며, 이국의 문화에 호응하려는 사람들이다.

처음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가장 참기 힘든 것은 새벽마다 잠을 깨우는 아잔일 것이다. 그러나 6개월만 지나면 그 소리가 자장가로 들린다며 “아잔은 마치 두리안과 같다”고 인니문화를 설명한 안 교수는, 외국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종교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 나라 문화의 근간인 언어와 종교를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인니에 거주하는 한국교민들이 인니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민간외교관이 되어 마음을 열 때, 진정 아름다운 한국의 이미지가 꽃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강좌의 서두를 열었다.

안 교수는 이어서 한국이슬람(한인뉴스 3월호 참조), 이슬람의 발전 배경(한인뉴스 4월호 참조)과 이슬람을 통한 신생 비즈니스를 열거하며 한인교민

사회가 인도네시아라는 거대한 나라의 일원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상생하고 융화할 것인가 하는 길을 제시했다. 경제성장도 좋지만 이제는 나눔의 실천으로 한국인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인니문화원 사공경 원장은 “교민들이 인니 문화에 친숙하게 접근하여 한국과 인니의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는 뜻으로 이 강좌를 개설했다. 회를 거듭하면서 많은 교민들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고 있으며, 교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을 때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좌는 한인뉴스와 각 언론매체를 통해 사전에 공지되고 있다.

Adzan 아잔 : 아랍어로 ‘알림’이라는 뜻, 이슬람교도들에게 금요일 공중 예배와 1일 5번의 기도시간을 알리는 소리. 수니파의 표준적인 아잔은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 알라 외에 어떤 신도 없다고 나는 증언한다. 나는 마호메트가 알라의 예언자라고 증언한다. 기도하라 오라. 구원받으러 오라.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 알라 외에 신은 없다.” 첫번째 문장은 4번 반복되고 마지막 문장은 1번, 다른 문장들은 2번 외치며 예배자들은 각 문장이 외쳐질 때마다 정해진 응답을 한다.



IASAS Cultural Convention 2011

<취재 : 길나연 JIS 11>

동남아국제학교연합 문화 컨벤션 2011

1982년, 6개국의 동남아시아의 국제학교는 IASAS (Interscholastic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Schools)라는 동남아시아 국제학교 연합을 결성했다. IASAS는 국제학교들간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스포츠와 예술을 통해 협동심과 이해심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소셜 <해리포터와 불의 잔>에 등장하는 트리위저드 시합 같은 것이다. IASAS에 참가하는 6개 국제학교들은 예술 (Cultural Convention, 이하 Culcon), MUN (Model

United Nations), 과 10 종목의 스포츠를 번갈아 가며 각기 다른 국제 학교에서 주최한다. 프로 스포츠시즌처럼 IASAS 스포츠도 3개의 시즌으로 나뉘고 예술시즌도 따로 있으므로 학생들이 더 많은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정되었다. 올해 3월 Culcon의 미술과 음악은 JIS에서 주최했고, 춤, 드라마, 토론 변론 등은 ISK (International School of Kuala Lumpur)에서 열렸다. IASAS에 선발된 학생들은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들로서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다. IASAS에 뽑히기 위해서, 그리고 뽑힌 후에도 학생들은 지도선생님의 지휘 아래 열심히 연습한다. 스포츠를 하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5~6번 등교 전이나 방과 후에 2시간 가량 연습한다. Culcon을 하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2~3시간 정도 연습하고 팀원들끼리도 스포츠처럼 방과 후에 리허설한다. 이번 Culcon에는 350여 명의 학생이 5일 동안 참여했다. JIS를 방문한 합창단, 현악단, 관현악단, 그리고 미술부 학생들은 2,3명씩 JIS 학생들 집에서 묵었다. 이들은 초청 지휘자들과 금요일, 토요일 공연을 연습하고, 또 심사위원 앞에서 선보일 개개인의 솔로무대도 선보였다. 취회자는 Culcon을 주관하는 학교에서 섭외를 하여 초청한다. 올해는 Carnegie Hall에서 지휘한 경력이 있는 지휘자 등 3명의 지휘자를 IASAS 공연을 위해 초청했다. 학생들은 짧은 시간 안에 서너 곡을 완전히 익혀 멋진 공연을 했다. 각국의 학교 대표들만의 공연이어서 감성이 더 풍부했고, 관객을 매료 시키는 연주를 하였다.

공연이 끝난 후, ISM (International School of Manila)의 한 학생은 JIS의 식당 음식과 방과 후 Pondok Indah Mall을 둘러 본 것이 이번 IASAS의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농담이라면서 IASAS의 Culcon은 음악이 최고로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시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참가한 학생들 모두 실력이 출중하고 예술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다른 학교 친구들과 자신들의 재능과 관심사를 나눌 수 있고, 교실 밖에서도 많은 것을 배워서 IASAS가 좋다고 했다. 어떤 학생은 수업에 빠질 수 있어서 IASAS가 기다려진다고 솔직히 말했다. 4년 연속 IASAS Choir에 합격한 학생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솔로공연을 할 때 너무 떨려서 그만 음이탈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IASAS를 위해 외국을 여행하는 것과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또 다시 그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다음 스포츠시즌에는 배드민턴, 육상 경기, 그리고 소프트볼 경기를 하며, 올해는 JIS가 소프트 볼을 주관한다. IASAS에 대한 일정, 생중계 방송, 그리고 더 많은 정보들은 www.iasas.asia에 있다.



'UP! UP! JIKS!'

JIKS
학부모

Supporters workshop

자 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선중복) 학부모회와 학부모샤프란봉사단원 60여 명은 학교 설립 이후 처음으로 2011년 3월 17일, 폭포가 있는 자연 속의 산책로를 따라 뾰족 찌보다스(Cibodas)로 산행을 다녀왔다.

출발하기 전에 교내에서 선중복 교장은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는데, 학교 발전과 자녀의 바람직한 인성을 위해서는 학부모님의 지속적인 신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여 학부모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뾰족 찌보다스에 도착한 JIKS SUPPORTERS 학부모들은 산행 중간에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할 산행'이라는 특별한 시·청각 장애인 체험활동을 '자녀'와 '학부모'의 관계로 인식하여 서로 돕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르는 중간 지점에 바닥의 푸른 이끼 때문에 물빛이 파랗게 보이는 'Blue Lake'와 늪지대 위로 만든 나무다리, 그리고 3개의 폭포가 있는 산마루 정상에 도착해서 'UP! UP! JIKS!'라는 슬로건을 외칠 때에는 수학여행을 온 10대 소녀들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 했다.



산행을 마친 JIKS SUPPORTERS 학부모들은 오랜만에 학창시절의 기분으로 돌아가 자연을 누리며 자신의 현재 위치를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한껏 충전된 느낌을 서로 나누었다. 선중복 교장은 미리 준비한 '어느 둘째며느리의 감동 수기'라는 글을 학부모들에게 선물로 주며 자녀의 인성과 학교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학부모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당부를 잊지 않았다.

출간

안선근 박사
'극동아시아에서 평화의 이슬람'



UIN 총장 "UIN에 한국학과 설립 추진"

국립이슬람대학교(UIN)의 안선근 박사가 한국의 이슬람에 관해 쓴 책 '극동 아시아 국가에서 평화의 이슬람' (Islam Damai Di Negeri Asia Timur Jauh) 출판기념식이 30일 이 대학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UIN의 꼬마루딘 히다얏 총장, 대사관의 이동관 공사, 민주평통 김광현 인니지회장, 학계 인사 및 친지들이 참석했고, TVRI와 TVOne 등 현지 언론도 취재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꼬마루딘 UIN 총장은 축사에서 "안 박사가 지은 한국 이슬람에 대한 소개서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교류가 확대되는 양국간 이해를 넓이는 데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국 교류 확대에 맞춰 UIN에 한국학과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관 공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양국 국민이 상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안 교수와 같은 선구자가 인도네시아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어로 출간된 이

서적은 한국이슬람의 역사와 발전은 물론 한국의 사회, 문화, 역사 등을 소개해, 현지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제공: 데일리코리아]



제1회 **한인미술협회**
한인미술협

어린이 사색대회

신나는 5월! 한인 어린이 여러분의
그림 실력을 뽐내세요!



1. 일시 : 2011. 5. 21. (토) 09:00~13:00(4시간)
2. 장소 : JIKS 대강당
3. 참가대상 : 유 · 초등부 한인어린이
4. 접수 : 인터넷접수 2011. 3. 25 ~ 5. 17.
참가자 성명, 학년, 주소, Email주소, 전화연락처를 꼭 기입해야 함.
5. 참가비 : 1인 Rp150,000 (인터넷접수자가 대회장에서 직접 접수)
6. 내용(주제) : 자유선택 (학교생활, 우리가족, 여행, 풍물 등)
7. 표현양식 및 재료 : 자유 / 재료는 각자 준비
8. 크기 : 4절 켄트지 29.7 X 42.0cm (미협 공인된 화지로 현장에서 직접 배분)
9. 시상 : 입상자 개별통보 / 시상은 11월 정기전시회 때 공동전시 예정.

주최 : 인니한인미술협회

후원 : 주인니한국대사관, 한인회, 대한체육회, KBS월드,
JIKS, 한나프레스, 일요신문, 한인뉴스

인치혁 ych0691@hanmail.net

0813 1514 9978

김은정 sf119@hanmail.net

0816 194 6015

김수영 suyong.agnes@gmail.com

0811 841 552





백색의 아름다움, 보고르 궁전

윤예지 / JIKS 10학년

자연박물관 - 보고르식물원

3월 19일 토요일,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나갈 준비를 했다. 오늘 가족과 함께 문화탐방을 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나는 들뜬 마음으로 한인회로 갔다. 그 곳에는 벌써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다. 인도네시아에 온 지 4달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인도네시아 구경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열대우림 식물원이 있는 보고르라는 곳에 가게 되다니... 우리는 먼저 인도네시아의 4대 국립대학에 들어가는 보고르농과대학에 들렀다. 보고르국립농대는 1963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농학, 수의학, 수산해양과학, 축산학, 임학, 농업공학과 기술, 수학, 자연과학, 경제경영학, 그리고 인간생태학 등 9개의 학과가 있으며, 원래는 고무농장이었다고 한다. '졸업식 건물'이라 불리는 건물도 있었다. 졸업식을 위한 건물이라는 뜻이다. 물론 다른 행사 때도 사용하지만 이름 자체를 그렇게 붙일 정도로 졸업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한국 졸업식과는 다르게 엄숙하고 시간도 5시간 혹은 종일 걸리며, 각자의 자리에 이름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꼭 참석해야한다고 한다. 일생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권위 있는 졸업식을 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며 대학교를 둘러보고 우리는 대통령궁, Istana Bogor에 갔다. 이곳은 기품 있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로 공원 같은

정원으로 에워 싸여있었다. 이 궁전은 자바 총독의 별장이었으나 지금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여별장으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궁전 정원의 무려 850마리의 흰점무늬 사슴이 한가롭게 돌아다니는 목가적인 풍경으로도 유명하다고 한다. 사슴 때문에 이곳이 더 신비해 보이지만, 실은 이 사슴은 식민지시절 총독의 사냥용이었다. 이곳은 1834년 10월에 있었던 지진으로 파손되었지만 영국인 부총독에 의해 재건되었다. Istana Bogor는 1968년 더 이상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되지 않게 되면서부터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오늘날 이 궁전은 공식행사나 영빈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곳은 궁이라서 그런지 들어가는 절차가 까다로웠다. 진, 샌들, 티셔츠는 허용이 되지 않아 어떤 회원은 궁전 앞에서 바지 위에 사롱을 입고 들어갔다. 가방검사, 몸검사도 철저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궁 안에 들어갔을 때 "우와" 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백색의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인도의 타지마할궁전이 연상되었다. 순백의 대리석은 태양의 각도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빛깔을 달리하며 보는 사람의 눈을 빼놓는 것은 '타지마할뿐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타지마할에 숨어 있는 왕비에 대한 사랑이야기처럼 웅장하면서도 정갈한 이

곳도 영국인 부총독 래플즈의 부인에 대한 애뜻한 사랑 이야기가 있었다. 래플즈는 이 대저택에서 살았으며 이곳에서 너무도 사랑한 10살 연상의 올리비아를 잃고 하염없이 슬퍼했다고 한다. 그는 궁 앞에 있는 보고르 식물원에 그녀를 추모하는 기념비를 만들며 슬픔을 달랬다고 한다. (그 뒤 래플즈는 싱가포르를 세웠다.) 사진도 많이 찍고 열심히 구경하였다. 떠나기 싫었지만... 발리풍의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식당 바닥에 있는 노란색은 신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다고 한다. 인니인들의 종교심을 알 수 있었다. 전통춤 공연했는데 우리나라 춤과 다른 점은 손동작이 섬세하고 강했다. 그 다음 보고르식물원에 갔는데 넓고 신기한 식물들이 많았다. 실제로 17,000종 이상의 식물이 있다고 한다. 이중 약 300종이 야자나무이고 남은 5,000종류가 있다. 1817년에 시작된 식물원은 19세기에 이르러 식물 연구와 폭넓은 범위의 식물표본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진 식물원답게 시간이 벗어날 경이로운 풍경들도 많았다. 세월을 느끼게 하는 나무동치, 타잔이 타고 다녔을 법한 밧줄처럼 늘어진 가지들, 아주 튼튼한 공기뿌리... 하늘을 향해 치솟은 나무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열대지방의 식물표본을 가진 살아 숨 쉬는 박물관이다. 열매로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열매가 붓 같은 나무도 있었다. 5Kg을 지탱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큰 잎을 가진 빅토리아 아마존 연꽃, 아주 큰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콩나무들, 노란 양초가 주렁주렁 달린 것 같은 나무, 일일이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한 식물들이 많았다. 또 이렇게 예쁜 선인장꽃을 많이 본 것도 오늘이 처음이다. 식물원에는 4개의 코스가 있다고 했다. 우리는 큰 식물원의 5분의 1정도만 봤다고 했다. 가이드 할아버지를 보면서 '유머가 사람의 품위를 높여 주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가이드 할아버지는 영어도 유창하고, 재치 있는 분이셨다. 무엇보다 자신의 직업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감동을 주었다. 나도 커서 저렇게 즐겁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힘들었지만 즐거운 식물원 구경을 마치고 노보텔이라는 곳에 갔다. 녹음 속에서 레몬티의 향를 음미하며 나는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고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자꾸만 둘러보았다. 레몬티를 다 마시고 나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집에 갈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버스 안에서는 비가 왔다. 시를 많이 낭송한 낭만적인 탐방이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에 맞추어 누군가 비에 관한 시를 낭송하였다. '창밖에는 비' 라는 시도 낭송하였다. 나도 속으로 정태원 님의 시를 낭송해 보았다.

비 오는 날엔
 뭉쿨 뭉쿨 비구름 같은
 누군가의 그리움으로 피어나서
 후두두두 빗줄기 같이
 누군가의 창문을 두드리고 싶다.

비 오는 날엔
 똑 똑 똑 낙숫물같이
 누군가의 영혼을 파고들여
 초롱초롱 별빛과 같은
 누군가의 눈 속에 각인시키고 싶다.



이 시처럼 보고르 탐방으로 얻은 열정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그리움이 되어 이곳에서의 생활을 보람되게 하고 싶다. 오늘 느낀 열정이 인도네시아를 사랑하는 빗줄기가 되어 인도네시아의 자연과 문화의 창문을 두드렸으면 좋겠다. 후두두두 빗줄기 같이 보고르 추억의 창문을 두드리고 싶다. 인도네시아의 영혼을, 보고르의 자연과 문화를 나의 눈 속에 각인시키고 싶다.

참고문헌 - 서부자바의 오래된 정원(사공 경)

한 · 인니문화연구원

한인

제10회 열린강좌

주 제 : 보로부두르 그리고...

살아 숨 쉬는 고도(古都) 족자카르타 이야기

강 사 : 이재원 문화연구원부원장

일 시 : 2011년 4월 9일(토) 10:00 - 12:00

장 소 : 한인회 문화회관

195회-197회 문화탐방

일 시 : 2011년 4월 12일(화) - 14일(목)

(수카르노하따공항에서 7시 50분출발)

탐방지 : 디엔고원 / 보로부두르/ 족자 외

연락처 :

신유희 0818-708-228 / plentyhoki@yahoo.co.kr

사공경 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Indonesian & Korean Culture Corph(카페)

<http://cafe.daum.net/IKCC>

내면을 비추는 거울 해븐스멤버 박한미 외장



첫 눈에 후덕함과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박한미 해븐스멤버 회장. 6년 전부터 현지인 한센병 환자 가정을 돌보고 있다. 그가 돌보는 환자 가정은 현재 125가구, 가족 당 인원으로 계산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해븐스멤버’라는 모임의 명칭은 천국의 모든 좋은 일들을 전해주는 단체가 되고 싶다는 뜻으로 봉사 초기부터의 명칭이라고 한다. 그동안 가능하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뜻을 같이하는 몇몇 봉사자들과 오직 자신의 길만을 걸어온 박 회장을 만났다.

해븐스멤버를 만들어 봉사하게 된 동기를 묻자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오래된 이야기가 나온다. “이곳 인도네시아에 살게 된지 15년이 되었다. 어려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순탄하게 살아왔는데, 한순간 어려운 고비가 찾아온 적이 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남은 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무작정 거리로 나가봤다. 무엇에 이끌린 듯 나가본 거리에서 인도네시아인 한센병 환자들이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주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정말 강하게 가슴에서 일어났다. 혼자서 그렇게 시작했다. 처음에는 점심도시락을 가져다주는 일로 시작했는데 한 6년쯤 지나고 나니 제법 규모가 커졌다.”

해븐스멤버의 현재 회원은 60명 정도인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입금시켜 주고 있으며, 실제로 같이 행동하는 회원들이 많은 편은 아니다. 회원모집을 따로 한 적은 없고 회원이 회원을 데리고 오고 알리고

해서 이 정도 회원이 되었다고 한다. 동참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나날이 늘고 있어서 고맙고 보람을 느낀다는 박 회장은 규모가 커졌다는 말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도 많이 늘었고, 후원자들도 처음에 비해 많아졌다는 얘기이며, 사실 이제부터 좀 더 많은 후원자들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해븐스멤버가 돌보고 있는 환자 가정은 현재 125가구이다. 매주 토요일이면 집집마다 쌀을 5kg씩 전달해주고, 한 달에 한 번은 아이들에게 간식을 마련해준다. 그들의 활동을 알고 별도로 지원해주는 옷이나 가구 등 후원품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전달해주기도 하고, 박 회장이 혼자서 한 달에 한 번 그들의 머리를 깎아주러 가고 있다. 이번에 사진협회에서 전사회수익금을 전해주어 모기가 들끓는 집 앞 하천의 방역을 해주고, 맨바닥에서 자는 것이 안쓰러워 깔고 잘 수 있는 매트를 가구마다 마련해줄 수 있었다. 사진협회 회원들은 후원금을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마을로 출사를 나가 가족사진을 찍어 주기도 했는데, 그날은 온 마을이 잔치분위기였다고,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행복을 만들어 내는 모습이 눈물겹게 고마운 날이었다고, 박 회장은 그날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고마워했다.

“기억에 남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 하나 얘기를 하자면, 화재가 나서 갈 곳이 없는 환자가족이 있었다. 남의 집 지붕 한구석에 판자를 깔고 생활하고 있기에 집을 지어주었다. 마침 회원 중에 회사를 고치고 난 건축재료들이 있다고 하기에 그것을 날라다 집을 짓고 몇몇 회원이 별도로 지원해준 특별 후원금으로 전기 와 수도시설까지 부족함 없이 설치 해주고 나니, 비록 크고 근사한 집 은 아니지만, 그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내 마음이 너무나 뿌듯하고 행



복했다.” 고 말하는 박 회장의 표정이 한껏 밝다.

박 회장은 아직도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다. 하다못해 아이들까지 학교에 다녀오면 거리에 나가 구걸을 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 외에 2세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하고 환경과 건강에도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이곳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에서 공간을 내주어 컴퓨터교실을 운영해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회가 되면 꼭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의지를 세우는 박 회장의 모습에서 결연함이 느껴진다.

“어떤 이는 나라에서 할 일을 왜 당신들이 걱정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의 고단한 현실을 보고도 책임 전가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본다.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이 깨끗하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고 도움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환자들의 집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고 싶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늘 밝게 사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면을 봐줬으면 좋겠다. 내 고통스런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많은 봉사자들이 모여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 봉사는 남을 도우면서 자기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다.”

처음엔 혼자서 조그맣게 시작한 일이었는데, 도움을 청하는 환자 가정이 많아져서 이제는 혼자 힘으로 그들 모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박 회장. 그래서 이제쯤엔 많은 사람이 동참하여 봉사와 보람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지 말고 상대의 내면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박 회장의 말은 모든 인간관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외면의 차림이나 말솜씨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을 한다. 내면의 향기야말로 진정한 존재의 향기임을 아는 박 회장과 해브스멤버의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퍼져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남다른 행복바이러스에 감염되기를 바라본다.

박 한 미 0858-1458-5753
cafe.daum.net/inni-heaven
hmtravel@hotmail.com





고귀한 생명을 구하는 인도네시아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무송 / 한인뉴스 편집위원

최근 인도네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들 중 사업의 실패와 그로 인한 생활고로 인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대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그분과 가족들이 함께 겪어왔던 어려웠던 상황들이 안타까움과 함께 전해집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교민들 대부분은 한결같이 충격을 받고, 동정과 슬픔과 위로의 마음이 함께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우리는 이내 저마다의 일상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비슷한 비극이 생기고 우리는 또 다시 잠시 동안의 동정과 슬픔 그리고 위로의 마음이 다시 우리의 주위를 떠돌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교민들 중에는 자녀의 학비와 하루의 끼니마저 걱정하며 지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거나 직장을 잃고 극빈층으로 전락하여 정말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는 가족들과 그들의 가장이 겪는 고생과 고통은 타국에서 살아가시는 그 분들께 외로움과 절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재앙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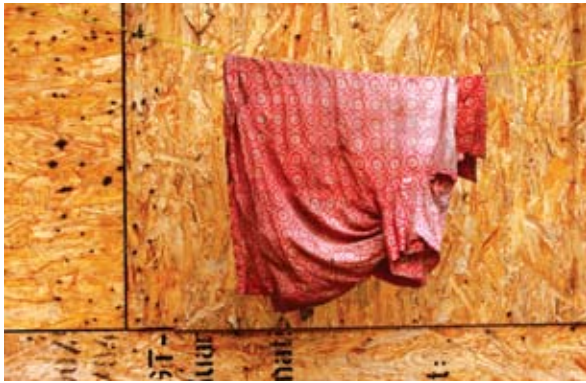
한국 교민사회의 역사는 어느덧 40년이 넘었고 교민의 수도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한 한인사회도 이제는 그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자선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한인사회의 규모를 고려할 때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재원의 기부 소스와 이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한인 자선단체가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호가 탁상 공론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실현이 되려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에 성공하신 많은 한국인들의 상위 5%가 한국교민 중 가장 어려운 5%를 도울 수만 있다면 저는 분명히 많은 가정이 지켜지고 적지 않은 분들을 자살이라는 최악의 선택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실, 자살하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보면 그 분들이 우리 교민사회에 철저히 격리되어 살아오신 분이 아니라 교회나 성당에도 다니고, 친구들과 골프도 자주 치고, 사업상 지인들도 많은 평범한 우리들 중 한 분임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당에서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작은 관심과 정신적, 물질적 도움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선택

을 막고 고귀한 생명을 구했을 수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 후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중업원 및 채권자로부터의 독촉, 자녀의 교육중단으로 인한 충격,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 삶에 대한 허무함, 외로움과 두려움 등이 뒤얽혀 그들을 죽음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한인사회의 교민들, 특히 능력 있고 도덕적 수준이 높은 상위 5%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손을 내민다면 그들은 물질적인 도움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한인사회의 도움과 위로, 그리고 주변에 이러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주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절망을 떨치고 일어나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재기에 성공하였을 때 그들은 이제



도움을 받던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민 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성장해 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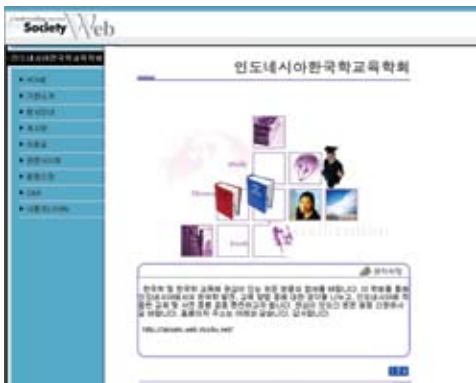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탈무드의 격언처럼 이제 우리 성숙한 한인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 사업에 성공하신 교민들, 교회나 성당의 원로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솔선수범하여 적어도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꺼운 기부문화가 정착시켜야 할 때는 더 이상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와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 졌을 때 우리는 더욱 살맛나는 교민사회를 만들어 교민 2세대, 3세대에 무엇보다 값진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영덕 교수, 인도네시아한국학교육학회 홈페이지 개설 <http://aksein.web.riss4u.net>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영덕입니다.

저는 최근 한 학회의 요구로 인도네시아의 한류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한국에 대해 호감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는 한국의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국학 전반에 대해 인도네시아인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학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학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모든 분들(인도네시아인 포함)과 연합하여 한국학 교육, 교재 편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 혹은 학회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여 이번 인도네시아한국학교육학회 설립에 관해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셔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정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의 회원 가입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 인도웹>



쌀과 식량 안보 · 1

농학박사 **최해춘**
(한국쌀연구회 부회장)

세계 인구는 이미 70억에 이르렀고 2050년이면 9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 정부는 최근 발간한 <식량과 농업의 미래> 보고서에서 “앞으로 20~40년에 걸쳐 식량의 수요, 생산, 분배에 영향을 끼칠 여러 요인이 한데 모이는 역사상 보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진단했으며, 레스터 브라운 지구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출간한 책 <벼랑 끝의 세계>에서 “식량위기가 문명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계와 예측들은 식량위기를 부르는 요인으로 기후변화, 인구 증가, 물과 에너지 자원 고갈, 소비 증가 등을 꼽는다. 식량문제는 지구촌 최대의 고민이자, 현안이다. 이 기고문은 작물육종학 최고권위자이신 최해춘 박사께서 인니교민들을 위해 특별히 기고해주신 ‘쌀과 식량안보’에 대한 진단서이다. 기고문을 보내주신 최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2번에 나누어 연재될 예정이다.

21세기를 맞이한 지구촌에서 점차 식량 위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세계 곡물 재고율이 1995년까지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되어 최저 안전 수준인 17~18%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96년 이후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대규모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하는 극심한 식량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가 무려 40개국 가까이 이른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미래의 식량 수급에 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0년까지는 식량 수급의 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2025년에는 세계의 식량 수요는 세계 인구와 각국의 수요로 보아 현재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지구 온난화 및 국지적 기상 이변이 심화되고 물 부족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 식량 수급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쌀의 경우 필리핀 소재 국제벼연구소(IRRI)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에는 세계 인구가 83억으로 쌀 수요량은 벼로 약 7억6천4백만 톤으로 현재보다 약 7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쌀 수요를 충족하려면 세계 벼 재배 면적 약 1억5천만ha에서 ha당 평균 벼 수량을 현재의 3.5톤에서 5.1톤으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곡물 자급률이 30%이하로 낮은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앞으로 남북통일 후의 7천만 민족의 식량 공

급 문제를 생각할 때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서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월드워치(World Watch)연구소의 자료를 중심으로 금후 세계 식량사정 및 우리나라의 식량문제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세계 식량 수급 현황

월드워치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곡류 생산 면적은 1950년 587백만ha이었던 것이 해마다 증가하여 1981년 732백만ha로 최고에 달하였다가 그 후 점차 감소되어 2000년 675백만ha로 1950년에 비해 1.15배정도 늘어난 수준에 그쳤으나 세계 인구 1인당 생산 면적은 1950년 0.23ha에서 2000년 0.11ha로 반 이하로 줄었다. 세계적으로 농경지는 침식이나 염류화, 사막화 등으로 인해 1945~1990년 사이에는 연간 평균 2백만ha가 훼손되었으며 현재는 연간 5~10백만ha씩 훼손되고 있다고 한다. 곡류 생산량은 1950년 631백만 톤에서 2000년 2,049백만 톤으로 약 3.2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위면적당 수량 증가에 기인된 바가 컸으며 1인당 생산량도 1950년 247kg이 1998년 338kg으로 증가되었다. 곡류 생산량의 증감 추이

를 보면 1950~1990년간에는 연평균 2.6%씩 증가되었으나 1990~2000년 사이에는 1.6%씩 밖에 증가되지 않아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1인당 관개 면적과 곡물 수확 면적이 줄고 화학비료 사용량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식량 수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지구촌 사람 모두의 문제이다. 곡물 재고율을 보면 1970년 이후 FAO 식량안보 보장 최저 안전 수준인 17~18%선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구 증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재고량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1세기 세계 식량 전망

식량 문제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식량 수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식량안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한다. 식량안보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에 대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또는 미래에 전 세계 식량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맞는다고 하여도 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전 세계 인구의 15%나 되는 8억 이상의 인구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면 식량안보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식량 문제를 전망할 때 왜 곡물을 주로 다루는가에 대해 <지구는 만원>의 저자 할 케인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곡물은 인간이 섭취하는 식량 에너지의 절반정도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육류, 우유 등 축산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며, 둘째, 곡물은 과일이나 채소와 달리 저장성이 길어 장거리 수송 교역이 가능하고 고위도 지대에서는 겨울철 동안, 그리고 몬순기후 지대에서는 건기 동안에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다.

○ 총괄적 전망

식량 수요량은 총 인구나 1인당 소비량으로, 그리고 생산량은 재배 면적과 단위면적당 수확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1인당 소비량은 소득 수준 그리고 축산물 소비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기후, 토양, 농업용수 및 기술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미래의 식량 수급 사정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식량 수요와 생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변화시킨 몇 가지 모델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의 수요와 생산 증가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예측하는 방법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어떤 모델에 의하여 미래의 식량 수요량과 생산량을 계산했느냐에 따라서 21세기 식량

수급 전망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예측 기관별로 차이가 나고 있다. FAO, 세계은행 및 IFPRI에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여 2010년도에도 전 세계 식량 수급은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이나 개발도상국의 곡물 부족량은 기준 연도인 1992년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식량 생산 증가율이 선진국보다 더 높을 것이지만 높은 인구 증가율과 소득 향상에 따른 1인당 곡물 소비량 증대로 총 소비량 증가율이 선진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월드워치연구소에서는 개도국과 선진국을 구분하지 않고 2030년의 세계 곡물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였는데 그 결과는 지극히 비관적이어서 곡물 총 생산량이 총 수요량에 비하여 5억 톤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식량 수급 관련 요인과 전망

FAO, IFPRI 및 월드워치연구소가 발표한 미래 식량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전망을 정리하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FAO나 IFPRI에 비해 월드워치연구소가 미래의 식량 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 양상을 훨씬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래 인간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식량 사정을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기관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정부기관에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 10~30년 후의 식량 사정을 다르게 전망하고 있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에 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식량은 그 성질상 충분해도 좋고 부족해도 좋은 것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양을 확보해야 하는 인간생활의 기본 필수품이다.



표 1. 미래 세계 식량 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O IFPRI 월드워치연구소

인구 증가	느림	느림	느림
작물의 수량성 증가	증가함	느림	수요 증가에 못 미침
경지 면적 증가	90백만ha(2010)	39백만ha(2020)	10백만 (2030)
관개 면적 증가	미미함	미미함	없음
토양 침식	계속	계속	계속
비료 및 농약 이용	증가	증가	서서히 증가
기후 변화	심함	매우 심함	매우 심함
신기술 이용 효과	불확실	긍정적	불확실

따라서 비관적인 전망에 초점을 맞추어 대책을 세워야 인간의 삶 자체와 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월드워치연구소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소의 브라운박사는 세계 모든 국가가 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010년 이후 세계의 곡물 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다수 국가에서 경제적,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이것이 바로 전 세계의 경제 동향에 영향을 줄 것임을 경고하였다. 다음은 월드워치연구소가 분석한 미래의 식량 위기 요인을 간추린 것이다.

1) 급증하는 식량 수요

세계 곡물 수요는 인구 증가와 1인당 소비량 증가에 의하여 증대된다. 세계 인구 증가율은 1995년 기준 1.6% 이하로 떨어졌지만 매년 9천만 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8천만 명이 개발도상국, 그리고 54백만 명이 아시아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의 경제 성장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었고 그 중에서도 현재 인구가 12억에 달하는 중국이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예상되는 인구 증가에 따라 매년 28백만 톤의 곡물이 추가로 소요되며 또한 여기에 소득 증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곡물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하여 각각 곡물 7, 4, 2.2kg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류 소비 증가는 바로 곡물 수요를 크게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로서 '90 ~ '95년 사이 중국의 곡물 소비량은 약 4천만 톤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80%가 사료로 이용되었고, 이 증가분은 '95년 호주의 곡물 생산량 26백만 톤을 훨씬 상회하는 양이다. 결론적으로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는 곡물 수요의 기록적인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것은 세계 각국 정부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다.

2) 심화되는 농지 부족

세계의 곡물 작부 면적은 195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981년에 최고점에 달했다가 그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카자흐스탄 등에서 토양 침식이 심한 경작지에 작물 재배를 중단하였고, 공업화, 도시화에 따라 우량한 농경지가 공장, 주택, 도로 용지 등으로 전환되었으며, 농업용 관개용수를 도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농경지의 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소득 증대에 따른 신선한



과일과 채소 소비량이 급증하게 되어 곡물 경작지에 이들이 재배되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경우 '78년의 채소 재배 면적이 3백만ha 이었는데 '94년에는 9백만ha로 증가하였다. 곡물의 작부 면적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는 브라질 및 아프리카의 광활한 건조지대에 관개시설을 하는 경우와 미국과 유럽 연합의 휴경중인 농지에 다시 곡물을 재배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96년의 곡물 재배 면적 6억9천만ha를 2030년까지 7억ha로 확대시킨다고 해도 1인당 경작지 면적은 '95년의 0.12ha에서 2030년에는 0.08ha로 감소하게 된다. 20세기 중반 이후 1인당 곡물 경작지가 계속 감소하였지만 토지생산성 상승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토지생산성의 급격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새

로운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1인당 곡물 생산량 감소와 곡물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3) 확산되는 물 부족

전 세계적으로 하천에서 끌어오거나 지하에서 퍼 올린 물 가운데 2/3가량을 농경지 관개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대수층의 지하수 고갈, 관개용수의 도시로의 전용,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하천 흐름 회복 등의 현상이 나타나 '79년 이후 1인당 관개 면적은 점차 감소하여 '94년까지 7% 감소하였다. '96년 「Science」 잡지에 게재된 수문학자들의 논문에서 “많은 지역에서 담수 부족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농업과 공업 생산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며, 인류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분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라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도 1인당 관개 면적이 계속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1인당 곡물 생산량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4) 한계에 달한 토지생산성

금세기 중반 이후 벼,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재배 농지의 토지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 기술은 관개 면적 확대, 다수확 품종 개발, 보급 및 화학비료 사용량 증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개 면적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화학비료 추가 사용에 의한 농작물의 수량 반응이 둔화되고 있으며, 첨단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에 의한 획기적인 다수확 품종 개발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생산성 향상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 그리고 중국에서는 '90년대부터 ha당 곡물 수확량 증가율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표 2에서 볼 수 있다. 월드워치연구소가 지적한 사항 외에도 앞으로 지속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엘니뇨나 날리냐 현상의 발생으로 세계 도처에 자연 재해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며 이는

표2. 1950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작물 수량성 변화

미 국				중 국			
연 도	단위수량 (t/ha)	증가율 (%)		연 도	단위수량 (t/ha)	증가율 (%)	
		10년	1년			각 기간 내	1년
1950	1.65	-	-	1950	1.04	-	-
1960	2.40	+45	+3.8	1977	2.11	+103 ^a	+2.7
1970	3.43	+43	+3.6	1984	3.41	+62 ^b	+7.1
1980	4.13	+20	+1.0	1996	4.06	+19 ^c	+1.6
1990	4.56	+10	+1.0				

a 27년, b 7년, c 12년, * 출처: Tough Choices (한국판, 1997)

곧 전 세계 곡물 생산을 불안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될 것이고 배분의 불균형을 더욱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식량 안보의 불안은 더욱 국제적 경제와 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 식량은 대부분 각국별로 어느 정도 자급 생산을 하여야 하며 식량 수출 지역이 북미대륙과 호주로 제한되어 있고 무역이 다국적 기업에 의한 독과점적인 운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량 수입국들이 언제나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을 안정된 가격으로 수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세계 곡물 시장은 몇몇 대량 수입국의 국내 사정 변화에 따라 교란될 위험이 크며 국제 식량 원조의 삭감 추세는 더욱 식량 수급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최근 식량 증산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의 감축은 더욱 세계 식량의 가용성을 위협하고 있다. (5월호에 계속)



설재 최 해 춘 농학박사

1944년 경북 경주 출생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학박사(작물육종학)
 서울여대, 인천대, 성균관대, 단국대, 동국대, 건국대, 한경대 대학원 강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 강사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벼유전육종과장
 강원대 생명공학부 겸직교수
 우량 벼씨 개발(80여 종)에 의한 식량증산
 유공으로 농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농림부장관표창 등을 받음
 제1회 공무원문예대전 저술상(행정자치부장관) 수상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우수논문상 수상
 한국작물학회 학술상 및 공로상 수상
 한국육종학회 학술상(품종상) 수상
 Koshihikari International Rice Prize 수상

저 서>
 『쌀을 알자』, 『육종실험길잡이』, 『Rice Culture in Asia』
 『함께 어울리는 참나의 삶』, 『쌀을 알자II』 등 10여 권,
 논문 200여 편



김성월 / 수필가, 방송프리랜서
hansol0508@hanmail.net

별과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대문에 성기를 조각해 둔 월로가이부족들



산 넘고 마을로 올라가면서 나는 힘들어 허리를 움켜잡고 올라갔다. 마을입구에 들어서자 키는 높다랗고 가지는 무성한 고목이 보였다. 땅속으로 얹전히 박혀 있어야 할 나무뿌리들은 무엇이 그리 겁났던지 반항이라도 하듯이 땅밖으로 뻗어 나와 있었다. 뻗어 나온 뿌리들은 가까운 가지끼리 비비꼬아 마을의 개선문을 만들고 있었다.

월로가이족장은 그 고목이 처음 이 마을에 살기 시작하면서 심었던 것인데, 햇수로 치면 600년이나 됐고 조상들이 심은 나무이기에 후손이 당신들이 고목을 섬기며 보호한다고 역사의 증거라고 설명해 주었다. 고목 밑둥치 곶이 파진 곳에 스사지*(Sesaji)들이 놓여 있었는데 발리 섬의 개들처럼 스사지를 먹듯이 마을의 닭들도 그걸 콧속 쫓아 먹고 있었다. 사람들은 고목에게 예우를 갖추고 고목은 그들의 수호신이 되어 마을을 보살피고 있는 것이 정겹게 느껴졌다.

월로가이부족들의 갈대로 엮어진 지붕, 집모양도 특이했다. 지붕의 생김새는 지붕을 페인트칠하다가 붓을 세워둔 것처럼 보였고 집집마다 대문에 이상한(?) 걸 조각해 둔 것도 요상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마루 끝에는 과일과 동물모양도 관화처럼 그려져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대문에 남자와 여자의 중요한 부분들만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문을 여는 손잡이는 남자 성기를, 문짝에는 여자의 유방과 자궁의 은밀한 부분까지 묘사하듯이 조각되어 있었다.

집에 왜 저런 걸
숭배하는 걸까
숭배 아니면 감상일까
그렇다면 여긴
19세 이상만 사는 걸까
나는 이유를 묻고 싶어
안달이 났다.



스사지* :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와 작은 음식들.

부족의 집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었고 넓은 마당 한가운데는 돌담으로 쌓은 큰 울타리(kanga)가 있었다. 울타리 안에는 둥글게 돌들이 깔렸고 그 위에 돌 3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그곳은 사끄랄(Sakral), 즉 '신성한 곳' 이란다. 세워진 돌을 투구(Tugu)라는데 설명이 너무 적나라했다. 아래 깔린 돌들은 여자의 자궁, 위에서 있는 건 남자의 성기를 상징한다. 이유는 남자는 성기가 우뚝 서야 강하고 용맹하다는 뜻으로 그들은 그걸 볼 때마다 되새긴다고 했다. 그곳은 외부인 출입금지이지만 일년에 한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순간, 내가 아줌마라서 다행이다. 저런 설명을 잘 소화해 낼 수 있으니 그런데 남의 부족들의 신성한 풍습을 전해 들으면서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떠올라 웃음이 나오려고 목이 가려왔다. 부족장은 침이 튀도록 열심히 나에게 설명했다. 나도 알맞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웃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딱 깨물어 가면서 진지하게 통역해 주었다.

마을 한복판에 돌로 쌓은 크고 둥근 울타리가 있다. 울타리를 깡아(kanga)라 하며 그 안에는 큰 집한 채가 있다. 부족에서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남자들만 그곳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이다. 울타리 안에는 둥글게 돌들이 깔려져 있고 그 위에 돌 3개가 꽂혀져 있었다.



돌담울타리 안에는 외부 사람들이 일 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다. 그때가 바로, 9월의 응구아(Nggua)가 열리는 날이다. 월로가이족들에게 있어 가장 큰 전통 축제인 것이다. 부족들 전체가 준비하는 가무와 조상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볼거리가 상당히 많다. 월로가이족은 리아베와(Riabewa)라는 부족의 우두머리가 있고 그 아래 아홉 명의 모살라끼(Mosalaki)들이 있다. 모살라끼는 부족들에게서 지도자로 대우받으며 부족장이기도 하다. 모살라끼들은 나무를 조각하는 솜씨가 뛰어나며 집집마다 새겨진 것들도 집 주인 각자가 새긴 것이라고 했다. 이 축제 때는 조상들께 제사를 드린다. 모살라끼(mosalaki)는 부족들에게서 지도자로 대우받으며 그 행사 때 모든 의식을 도



맡아 진행한다.

월로가이 마을의 집들은 지붕이 아주 높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350년 일본의 3년 반 동안 식민지시대로 겪었다. 그 당시 수시로 와서 처녀(12-27세)들을 잡아갔다고 한다. 부모들은 자식을 안 빼앗기려고 광주리에 담아 물건인 양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가 밤도 선반위로 올려 주었고 화장실 갈 때만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고 한다. 부족장은 커다란 광주리를 꺼내서 처녀들이 앉았던 모습을 재현해 주었다. 웅크리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면 다리도 아팠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MP3가 없어 노래도 못 들었을 것이고 핸드폰이 없어 페이스북도 하지 못했을 터인데 하루 종일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심심했을까.



월로가이족들이 어머니를 귀히 여기는 건 모든 생명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며 조상은 우리를 낳았으니 마땅히 섬겨야하고, 조상은 우리를 낳았으니 섬겨야하고, 땅은 먹을 것을 제공해주니 고마워서, 하늘은 늘 보살펴주니 감사해서, 죽으면 내 영혼은 반드시 끌리무투호수로 가니 그 호수 또한 믿는다고 했다. 집 안에는 창고, 안방 부엌까지 다 나눠져 있었다. 거실 같은 곳에 작은 막대기가 세워져 있었고 그 막대기에는 크고 작은 주머니들을 주렁주렁 달아 놓았다. 막대기는 어머니의 몸이고 주머니들은 몸속의 장기들이며 잡곡이나 음식을 주머니들 속에 넣어 두었다가 제사 때 스사지로 사용한다고 했다. 가톨릭과 토템이 공존하는 그들의 신앙이 내게는 생소했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가톨릭신자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절을 하는 것과 그리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고개가 끄덕여졌다.

인도네시아, 나라가 넓어서 그런지 섬 구석구석으로 다녀보니 참으로 희한하고 알맞은 부족들도 많았다. 월로가이족들의 신체에 관한 이 신비스러운 풍습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 천연문화라고 해도 된다. ■■■



인도네시아 플로레스섬 엔테에 있는 마을



안 선 근(박사)

이슬람문화의 이해

인도네시아 역사, 문화의 이해와 적용

인도네시아의 현재

인도네시아하면 떠오르는 것은 섬나라 대국,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이 풍부한 나라,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 산림자원과 해양자원의 나라, 자연에너지 대국, 모자이크의 나라 등의 적지 않은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풍부한 자원대국이다.

참고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다양한 육지생물의 서식지이며, 해양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한 세계에서 으뜸이다. 인도네시아의 숲이 지구표면을 덮고 있는 비율은 1.3%에 불과하지만 이는 전세계 열대우림의 10%를 차지하는 비율이며 또한 세계의 모든 동식물종의 20%, 조류종의 17% 그리고 어류종의 25%를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군도 10헥타르내에서 서식하는 수목의 종류가 북미 전체에서 발견되는 수목의 종류보다 훨씬 더 다양하며, 세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은 혹은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 다양한 곤충이나 동식물의 종류가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다. 실제로 지구표면의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보르네오에서 서식하는 조류, 포유류, 유화식물의 종류는 전 세계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카리브 해 전체를 통틀어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다양성도 인도양과 남중국해, 태평양의 합류점에서 세 가지 해류의 영양분을 모두 공급받는 인도네시아에 비하면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서적 : 『CODE GREEN』, 2008. 토머스 프리드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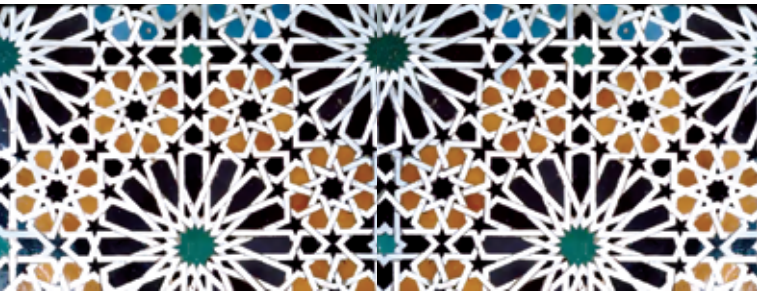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초기 전래 시점은...

인도네시아 이슬람교의 전래 시점은 두 가지로 추측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계통의 유명한 학자 무

함맛 함까씨는 논문을 통해 이슬람의 전래 시점을 약 7세기경으로 추정하면서 초기 이슬람은 지금의 남부 수마트라 팔렘방 지역(예전의 스리위자야 왕국)내에서 예멘 족들이 향료를 구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화란의 인류학자들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전래시기를 약 11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역사 서적이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유명 지도자인 무함맛 함까씨가 저술한 논문의 내용을 더욱 믿고 있다. 현재 각 고등교육기관이나 일반 이슬람 관련학교의 프산트렌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슬람 학문을 배우고 있다.



이슬람이 인도네시아에 전파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는 이미 토착 종교화된 힌두교와 불교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 두 종교는 인도네시아의 농경사회 문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슬람은 인도네시아사회를 상업문화(향료무역의 실례)로 변화하게 하였고, 세계의 상업 문화권에 새롭게 눈뜨게 했다. 아랍상인들에 의해 변화와 개혁의 계기가 마련된 가운데 아랍상인




들의 이슬람전파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부유한 상업 문화가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선교문화의 깊은 뿌리를 안착시키는 뿌리가 된 셈이다.

그들이 지금의 팔렘방 지역의 스리 위자야에서 무역 거래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가하려면 반드시 수마트라 아째 지역의 제일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퍼를락이라는 자그마한 섬에서 배를 기다려야만 했다. 인도네시아는 그때만 해도 열대성 계절변화가 6개월에 한번, 1년에 2번 정도로 극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기의 계절풍을 피하려면 그들 아랍상인들은 하는 수 없이 약 6개월 동안 퍼를락이라는 섬에서 지내야만 할 때도 있었다. 그들은 퍼를락 섬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이슬람을 전파하게 되었고 지루함과 따분함을 달래기 위해 그 지역의 젊은 여성들과의 결혼을 하고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다. 결혼과 정착생활로 인한 이슬람문화의 전파는 당시만 해도 육상교통에 비해 해상교통이 더욱 발달했던 때여서 아째 정착 이후 팔렘방과 자와 지역 주요 항로의 요충지를 따라서 발달되었으며 자와 지역의 데막, 과장, 마따람 지역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선교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 Perlak 섬을 중심으로 선교 시작
- 아랍상인들의 현지 여성들과의 결혼 선택
- 육로가 아닌 해상으로 쉽게 전파
- 수마트라섬에서 자와로 이전 이슬람 전파
- 자와 인의 힌두, 불교의 농경사회에서 상업무역 중심인 이슬람의 변화에 쉽게 전파
- 힌두, 불교, 토속신앙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력 있는 선교활동 선택(언어, 음악, 건축, 예술 등)
- 초기 이슬람 정착 지역인 아째가 가장 이슬람이 강한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년간의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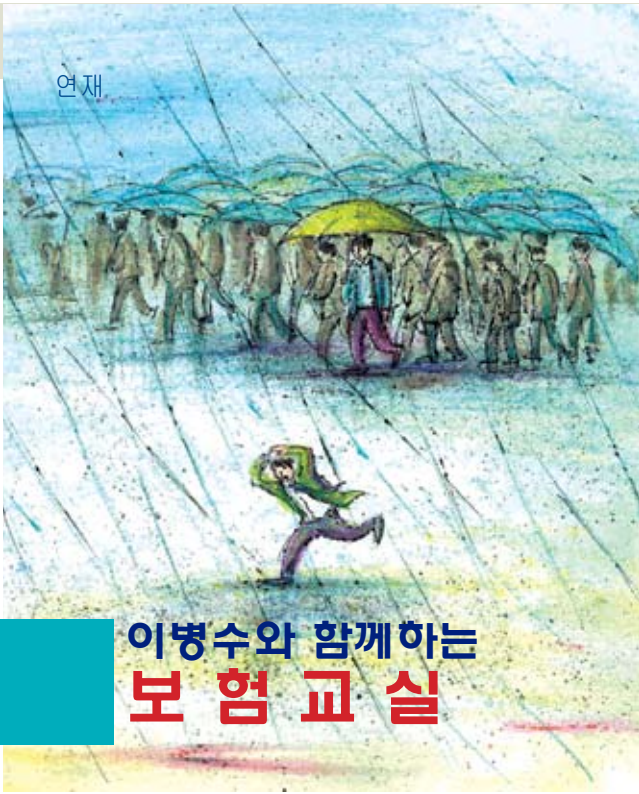
- 정품 진주 전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배달가능)
- 최상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 보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체가공 가능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 1 No. 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Tel. 021-725-8857
 HP. 0816-873-176 / 0816-1390-333



이병수와 함께하는 보험교실

지난 3월호에서 ‘내 몸에 맞는 생명보험 설계’를 주제로 4개월에 걸친 생명보험 연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4월호부터는 약속드린 대로 생명보험에 비해서는 저의 전문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보험 전반에 대하여 교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내용을 계속하여 신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교실 연재 초기에 가볍게 짚어보았던 손해보험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볼까요?

손해보험이란?

생명보험은 사람이 다치거나(상해보험), 병에 걸리거나(질병보험), 사망하는(사망보험) 경우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인 반면, 손해보험은 보험대상자(전문 용어로 ‘보험의 목적’이라고 합니다)인 사람이나 물건이 입은 실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제도로써 실무상 자동차보험, 일반보험(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해상적화보험, 운송보험 등) 및 장기보험의 큰 세 부류로 구분합니다. 손해의 형태로 재산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책임보험, 기업휴지보험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요.

정액(正額)보험인 생명보험에 비해 손해보험은 실손(實損)보험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금액 없이 특정한도(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로 손해를 입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또는 기업체 대상의 재산종합보험 등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따라서 손해보험에서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을 2개 이상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목적물의

보험가액(Insurable Value) 한도 내에서 실제 입은 손해액만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하자면 덜 흥미롭고 지루해질 소지가 다분하지만 손해보험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첫 시간이니 만큼 손해보험의 가장 기초적인 몇 가지 원리쯤은 짚어보고 나서 여러분에게 보다 친숙하고 실무적으로 유용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순서이겠지요?

위험과 손해의 개념

어릴 적에 우리는 엄마로부터 설탕, 사탕과 같은 ‘단거’는 몸에 좋지 않은 것, 즉 ‘위험’한 것으로 배워왔고 실제로 그러하지요. 영어라고는 ABCD 알파벳 정도밖에 모르시던 엄마가 어떻게 ‘단거’는 ‘위험’한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왜냐구요? ‘단거’ = ‘Danger’ = ‘위험’... 영어를 배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의미이지요... 영어를 처음 접할 때 ‘위험’이라는 뜻으로 배우는 단어는 ‘Danger’ 이지요. 그런데 보험에서는 ‘Risk’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위험을 구분하는 용어로 ‘Hazard’라는 용어를 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Risk’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위험을 ‘손해발생의 가능성’이라고 정의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보유하거나 추구하는 가치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바로 위험이며, ‘손해’(Loss)란 원하지 않는(Undesired) 또는 뜻하지 않은(Unintentional) 자산가치의 하락 또는 소멸이라고 정의합니다.

손해의 가능성만 있고 이익의 가능성은 없는 순수한 의미의 위험을 ‘순수위험’(Pure Risk)이라고 하고, 손해와 이익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위험을 ‘투기적 위험’(Speculative Risk)이라고 합니다. 주식투자와 번지점프는 어느 위험에 속할까요? 당연히 투기적 위험이겠지요? 주식투자에는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창출이 가능하고 번지점프는 성공하는 경우 스틸만점이라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지요. 대부분의 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순수위험이며, 이러한 투기적 위험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위험이므로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제외되기 마련입니다.

손해의 성격을 기준으로 ‘인적손해’와 ‘물적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손해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적 손해는 다시 ‘재산손해’(직접손해), ‘비용손

해' (간접손해) 및 책임손해 등으로 세분됩니다. 추후 '재산종합보험' 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겠지만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제조공장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소실되었을 경우 소유자는 타버린 공장자체의 재산손해(직접손해)와 공장을 다시 지을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료, 급여, 잉여가치의 상실 등 비용손해(간접손해) 및 바이어에 대한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손해까지 입게 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위험과 손해를 담보로 하는 보험을 '머피의 법칙'에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못될 수 있을 경우에는 어김없이 잘못되고 만다." 라는 의미의 머피의 법칙은 잘된 일은 흘려버리고 잘못된 일은 오래 기억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자조적인 표현이지요.

잘 알고 계신 대표적 법칙을 열거해보면,
세차하면 비가 온다.
치통은 병원이 문 닫는 토요일 밤에 시작된다.
내가 골프를 안치는 토요일은 반드시 비가 온다(?).

이 시간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험과 관련한 머피의 법칙을 하나 만들어볼까요?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모든 손해에는 원인이 있지요. 보험용어로는 손인(손인)인(Cause of Loss)이라고 하며 우연한 것(사고)과 필연적인 것으로 구분됩니다. 물건이 노후화되거나 마모되는 현상, 액체가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현상 등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그리고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필연적인' 손인에 속하면서 보험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겠지요? 즉 손해보험에서는 '우연한 손인' (Accidental



Cause of Loss)만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화재, 폭발, 홍수, 지진, 도난, 강도, 상해 등의 사고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이러한 '사고원인'이 중요한 이유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와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지요. 즉 손해보험은 본인(피보험자)의 부주의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와 그로 인한 본인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보험의 존재이유?

- 위험을 싫어하는 인간의 본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요. A라는 사람에게 일백만 불 가치의 재산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고가능성으로 인하여 금년에 그 재산을 모두 잃어버릴 확률이 3%라는 점괘(?)가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극히 미미한 사고확률에도 전전긍긍하던 A에게 어느 날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 3%라는 확률에 해당하는 3만 불을 내면 어떠한 사고(화재, 강도, 도난, 천재지변 등)로 인한 재산손해도 완전해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즉, 3만 불을 내면 재산은 97만 불로 줄어들지만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만이고, 사고가 나면 손해액만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어 어느 경우든 97만 불의 재산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이지요.

실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률 3%를 감수하기보다 보험가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보험가입을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정답이고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험적, 보편적으로 위험이 있는 것보다는 '안전한 상태'를 선호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손해보험의 개념과 중요한 기본원리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가볍고 쉽게 이론적인 부분을 짚어보고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실무적이고 유용한 손해보험의 바다로 향해를 시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0816-181-3615
hatibaru@naver.com

입양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6.25 동란 이후 참으로 많은 한국의 어린이가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외국인 양부모 밑에서 성장한 한국계 입양아가 성인이 되어 한국을 방문하여 생부모를 찾는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종종 접하고 있으며, 수많은 한국 아이를 외국인 가정에게 입양을 알선한 홀트회를 기억하고 있으며, 6.25 동란 시 전쟁고아들 수송 작전 휴머니티를 그린 미국 영화 “전송가”를 시니어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전송가에 나온 그 아이들 대부분은 외국인 가정에 입양되었을 것이다. 참혹한 전쟁을 겪은 한국인에게는 입양이라는 단어가 친근하나 인도네시아는 입양을 제도적으로 입양허가제로 만들어 규제하고 있으며 입양이 별로 많지도 않으며 입양허가를 받는 일도 쉽지는 않다. 특히 외국국적 양부모가 인도네시아국적 아이를 입양시키려면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많고 수속이 번잡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경비도 적지 않게 들어가는 현실이다. 입양은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를 혈연관계가 있는 부모자식의 관계를 관련 법규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드는 법적인 행위이며 입양이 이뤄지면 양부모에게 민법상의 양육 책임이 발생하며 양자에게는 친생자에게 주어진 민법상의 모든 권리가 주어진다. 양부모 사망 시 유산상속에 친생자와 양자 간에 아무런 차등이 없다. 인도네시아국적 양부모에 의한 인도네시아국적 아이 입양, 외국국적 양부모에 의한 인도네시아 아이 입양, 양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국적인 양부모에 의한 인도네시아국적 아이 입양, 인도네시아 국적 양부모에 의한 외국국적 아이 입양, 싱글 양부모에 의한 입양 등 여러 종류의 입양 중에 외국국적 양부모에 의한 인도네시아국적 아이 입양을 중점으로 하여 설명한다.

1. 입양 방법

인도네시아국적 아이를 인도네시아국적 양부모가 입양하는 경우에는 관습법에 의한 입양과 관련법규에 따른 입양이 있으며 외국국적 양부모가 인도네시아국적 아

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관련법규에 따라 어린이 보호기관을 통하여 입양하는 방법이 있다.

2. 입양아의 조건

입양아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6세 미만 아이를 우선적으로 하며, 6세부터 12세 아이까지 아이입양은 긴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12세부터 18세 미만 아이입양은 해당 아이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한다. 입양아는 원칙적으로 생부모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다른 가정 혹은 어린이보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로 제한하고 있다.

3. 양부모의 조건

- 3.1. 심신이 건강한 자
- 3.2. 나이는 최소 30세 이상 최고 55세인 자
- 3.3. 입양아와 같은 종교를 믿는 자
- 3.4.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3.5. 결혼한 지 5년 이상 된 자
- 3.6. 동성부부가 아닌 자
- 3.7. 아이가 없거나 아이가 한 명 뿐인 자
- 3.8. 경제적 및 사회적 능력이 있는 자
- 3.9. 입양아의 생부모 혹은 법적인 보호자로부터 서면 입양동의를 얻은 자
- 3.10. 입양아를 최선을 다해 양육하며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자
- 3.11. 관할 사회사업 봉사자의 보고서
- 3.12. 입양아 보호허가를 받아 최소 6개월 이상 보호한 자
- 3.13. 사회복지장관 혹은 사회복지방청의 입양허가를 받은 자
- 3.14. 외국인 양부모는 적법하게 인도네시아에서 최소 2년 이상 이미 거주한 자이며, 본국 정부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았으며, 입양 후 입양아의 상황을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년 아이가 거주하게 될 국가에 있는 인

도네시아 공관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4. 외국 국적 양부모에 의한 인도네시아 국적 아이 입양

- 4.1. 사회부장관의 입양허가를 득한 후 법원의 입양판결을 받아야 한다.
- 4.2. 어린이보호기관을 통해 입양수속을 해야 한다.
- 4.3. 상술한 “3 항”의 조건을 갖추고
- 4.4. 자신의 의사 표시 능력이 있는 아이 입양 시는 입양아의 입양 동의
- 4.5. 입양아가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 거주 시는 사회부와 입양아가 거주하는 나라에 있는 인도네시아공관에 입양아 소재 보고
- 4.6. 입양아가 18세가 될 때까지는 인도네시아공관의 입양아 상황 파악 목적 가정방문에 응해야 한다.
- 4.7. 입양 허가 신청 구비 요건
 - 4.7.1. 정부병원 발급 양부모의 건강진단서
 - 4.7.2. 정부병원 정신과 전문의 발급 양부모의 정신질환이 없다는 진단서
 - 4.7.3. 정부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양부모의 생식기능에 관한 진단서
 - 4.7.4. 양부모 국적 국가 발급 양부모의 출생증서
 - 4.7.5. 양부모의 여권, 인도네시아 정부 발급 기한부

- 거주허가서(KITAS) 혹은 거주허가서(KITAP) 사본 및 거소증
- 4.7.6. 입양아의 생부모의 주민등록증, 가족카드, 종교증명서, 입양아의 종교에 관한 법원 확인서
- 4.7.7. 경찰청 발급 양부모의 경찰기록확인서
- 4.7.8. 양부모의 국적 국가에서 공증된 양부모의 결혼증명서
- 4.7.9. 양부모가 친생아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아 출생증명서
- 4.7.10. 인도네시아외무부 및 법무부에 등록되고 양부모국적 국가의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확인한 양부모의 소득증명서
- 4.7.11. 자신의 의사표시가 가능한 입양아의 입양동의서(정부 수입인지 부착) 혹은 입양아를 케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확인서
- 4.7.12. 입양아의 생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의 입양동의서(정부 수입인지 부착)
- 4.7.13. 입양아를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정부수입인지 부착)
- 4.7.14. 입양아가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입양아가 18세 될 때까지는 사회부와 입양아가 거주하는 국가에 주재하는 인도네시아공관에 입양아의 상황을 매년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정부수입인지 부착)



- 4.7.15. 입양아가 18세가 될 때까지 입양아의 상황 파악 목적 인도네시아공관원의 방문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각서(정부수입인지 부착)
- 4.7.16. 제출하는 서류가 모두 적법한 서류라는 내용의 각서(정부수입인지부착)
- 4.7.17. 친생아와 입양아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양육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정부수입인지부착)
- 4.7.18. 입양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이에 다 다르다면 입양아의 출신지와 생부모를 입양아에게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정부수입인지 부착)
- 4.7.19. 양부모국적 국가의 외무부에 등록된 양부모국적 국가 발급 입양허가서
- 4.7.20. 양부모국적 국가에서 공증된 양부모 가족의 입양동의서
- 4.7.21. 어린이보호기관의 사회봉사자 발급 입양아에 대한 보고서
- 4.7.22. 입양아의 생부모가 아이를 병원, 경찰 혹은 사회기관에 맡긴 확인서
- 4.7.23. 사회기관이 입양아를 어린이보호기관에 인계한 확인서
- 4.7.24. 사회부 관계공무원이 작성한 양부모에 대한 보고서
- 4.7.25. 사회부장관을 대리하여 사회갱생 및 봉사청장이 발급한 임시어린이보호허가서
- 4.7.26. 사회부지방청공무원 및 사회봉사자 발급 양부모가 입양아를 임시 양육하는 동안 입양아의 상황보고서
- 4.7.27. 양부모와 입양아가 함께 찍은 사진
- 4.7.28. 입양허가에 대한 입양심의위원회의 결정서
- 4.7.29. 사회부 장관을 대리한 사회갱생 및 보호청장의 입양허가서
- 4.7.30. 법원의 허가서



* 양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국적 인 경우의 입양도 상술한 구비요건에 준한다.



5. 외국 국적 양부모의 인도네시아 국적 아이 입양 수속 절차

- 5.1. 양부모 후보가 “4항” 에서 기술한 구비요건을 첨부하여 사회부장관에게 아이 양육허가를 신청한다(정부수입인지 부착).
- 5.2. 사회부장관을 대리하여 사회갱생 및 봉사청의 아동봉사국장이 담당공무원에게 양부모 후보의 가정을 방문하고 신청서를 검토할 것을 명한다.
- 5.3. 양부모 가정 방문과 신청서 검토 결과 양육허가 발급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아동봉사국장이 아동보호기관을 통해서 양부모 후보에게 임시양육허가서를 발급한다.
- 5.4. 아동보호기관은 아이를 양부모 후보에게 인계한다.
- 5.5. 사회부의 담당공무원이 양육지도 및 감독을 한다.
- 5.6. 양부모 후보가 사회부장관에게 입양동기를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입양허가를 신청한다(정부수입인지 부착).
- 5.7. 양부모 후보가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에 사회부의 공무원과 어린이보호기관의 사회봉사자가 양부모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의 상황을 파악한다.
- 5.8. 어린이봉사국장이 양부모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심사하고 심의팀에서 입양신청서를 심의한다.
- 5.9. 심사를 통과하면 심사팀이 입양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한다.
- 5.10. 사회부장관을 대리하여 사회갱생 및 봉사청장이 입양허가서를 발급한다.
- 5.11. 입양허가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아이를 생부모, 법적인 보호자 혹은 원래 어린이 보호기관으로 돌려 보내거나 아이에게 적합한 다른 양육처로 보낸다.
- 5.12. 사회부장관의 양육허가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판결을 청원하여 판결문을 받는다.
- 5.13.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사회부장관에게 입양수속 완료를 보고한다.
- 5.14. 사회부는 입양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한다.
- 5.15. 인도네시아정부에서 받은 입양허가서와 인도네시아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양부모국적 국가에서 입양수속을 한다.

나무들 거꾸로 서다

바람의 화원에서
목은 시간의 향기가 몰려왔지
凋落하는 것은 슬퍼서 아름답구나
생각할 때 산중턱에서
어린나무 두어 그루를 보았지
아빠, 나무들은 왜 거꾸로 서있어요
언덕너머에서 불어온 아들의 휘파람이
마음속에 들어와 바스락거렸지

생성과 소멸 사이 어디쯤에서
희망의 나이테 몇 번 더 그리고나면
새순이 돋고 마침내 그들도 드리울 거라고
말하지 못했지, 이 가을 어찌면 아들은
어린나무처럼 하늘로 뿌리를 내고
연한 공기를 흡반으로 빨아드리려 하는지도 몰라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뿌리가
땅으로만 뻗어 더 이상 하늘을 꿈꾸지 않는다는 것
바람의 화원에서 거꾸로 선 나무들이
아프게 내게 말해 주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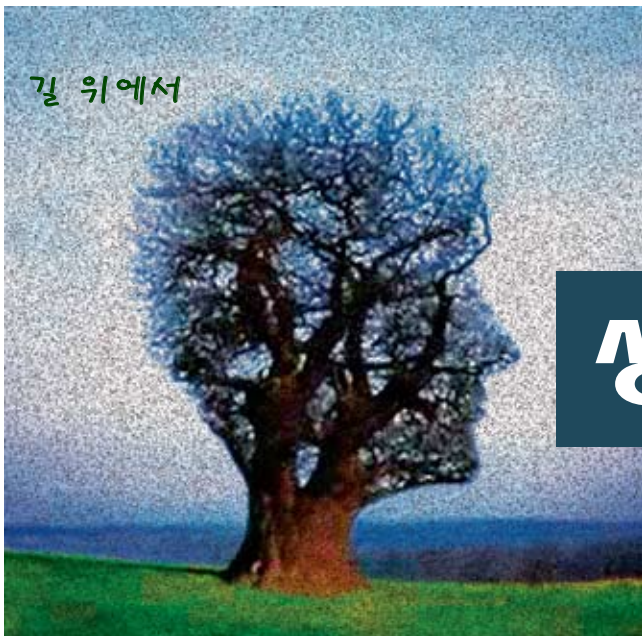


4월의 시 이 승 훈

1970년 대구 출생

2009년 한나프레스 신춘문에 시부문 당선

현재 인도네시아 교육대학 한국어센터 출강, 재인니한인문인협회 회원



생각 노동의 시대

박관규 / 자카르타 안디익회 목사

과 스칼은 자신의 수상록인 광세 1절에서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하나의 갈대여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고 설교하였다. 약하지만 생각함으로 그 약함을 반전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또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한다. 자신의 실존의 본질이 생각함에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 생각한다든 것이야말로 사람과 다른 피조물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이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인간은 바로 이 생각능력을 토대로 인류문명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생각이 모든 것의 1차적 원인이며 사실상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토지, 자본, 노동이 생산의 3요소이던 시대는 벌써 지나갔으며 생각이 부가가치 생산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아울러 인간의 노동패턴도 당초 손, 육체노동의 시대에서 기계노동의 시대로, 그리고 지식노동의 시대를 거쳐 이제는 생각노동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과거 “Work hard” 의 시대에서 이제는 “Think Hard” 의 시대가 된 것이다. “똑 같은 것을 똑 같은 방법으로 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 이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노자의 말이다. 이 시대는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앞 설수도, 성공할 수도 없는 시대이다.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하고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창의성,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다. 그저 열심히 일 하는 것만으로는 남보다 2배 이상 실적을 올리기 어렵지만 창의성, 상상력을 발휘하면 10배, 100배, 1000배도 가능하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에 달려있다” 라고 했으며 사회학자들은 21세기를 창의성과 상상력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창의성과 상상력이 강조되는 것

일까?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본다. 일본의 아오모리 현은 일본 최대의 사과 생산지이다. 그런데 이곳에 엄청난 태풍이 몰아쳐서 마을전체가 쓸대밭이 되었다. 수확을 앞둔 사과도 90%나 소실되어 완전히 한 해 농사를 망친 상황이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하나? 하늘을 원망하고 날씨를 원망하기 일쑤다. 아니면 천재지변이니 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시위나 데모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한 농민은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에 주목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골똘히 생각하던 그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사과를 낱개로 포장한 뒤 “합격사과” 라고 이름 붙였다. “초속 40m의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90%가 떨어졌는데도 붙어있던 사과” 라는 선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웬지 이 사과를 사면 입시를 앞둔 자녀가 합격할 지도 모른다는, 또 어떤 행운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값이 무려 10배나 비쌌지만 불티나게 다 팔려버렸다. 한 농민의 창의적인 발상 하나로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다. 한국능률협회(KMAC)가 매출상위 3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간부,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존경 받는 기업” 조사에서 작년에 이어 8년 연속 1위에 오른 회사이다. 이 삼성전자의 이종용 부회장이 2007년 주주총회에서 “아사히야마 동물원과 같은 삼성전자가 되겠다” 고 하여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세계굴지의 전자회사가 웬 동물원?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고스케 마사오 원장이 취임할 당시 년 관람객 26만 명으로 매각설까지 나돌며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그 후, 2006년엔 관람객이 270만 명으로 수직상승했고 2007년엔 300만 명, 2008년엔 330만 명으로 계속 늘어났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것은



고스케 원장의 창의성에서 나온 혁신에 있었다. 한마디로 능력전시! 곧 동물을 보여주는 동물원이 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는 동물원으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었다. 그 결과로 관람객의 폭발적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 동물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일본에서 가장 창의적인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사람의 창의성이 기관을 살려 낸 것이다.

두바이에 가면 돛단배 모양의 아주 특이하고 아름다운 세계 유일의 7성 호텔 버즈 알 아랍이 있다. 시내에는 우리 삼성물산이 시공한 세계최고 높이의 버즈 두바이가 그 위용을 자랑한다. 해안선을 늘리고자 야자수에서 착안한 팜 아일랜드 인공섬들도 있다. 열사의 사막에 다양한 난이도의 인공슬로프 5개를 갖춘 스키장도 개설되어 있다. 해저 20m 위치에 건설한 세계 최초의 해저호텔 하이드로 폴리스도 있다. 3,6,12,24 시간마다 한 바퀴 도는 세계최초의 360도 회전식 고층주택도 있다. 이렇게 하여 두바이는 석유 의존 경제를 완전 탈피함은 물론 전 세계의 부자들 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명실상부한 중동의 허브 국가가 되었다. 두바이는 원래 황량한 사막에 조개나 좁던 가난한 어촌나라였다 본토인 인구라야 30만 명도 채 안 되는, 볼 만한 유적지조차 하나도 없는 불모지였다. 그랬던 이 나라가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드의 무한한 상상력과 기상천외한 창의적 발상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동의 부국으로 우뚝 선 것이다. 이것이 생각의 힘, 곧 창의성과 상상력의 놀라운 능력이다. 개인 사과농장에 있어서나, 동물원과 같은 기관이나 조직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까지 창의성과 상상력이 곧 부강의 원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창의성과 상상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선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창의성이나 상상력도 결국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요즘 CEO들 중에는 일주일중의 하루를 생각만 하는 날로 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생각을 빌리는 것이다. 타인의 말이나 아이디어에서 변칙하는 그 무엇을 캐치하는 것이다. Brain Storming도 그 한 예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창의성과 상상력에 있어서도 그 원천이 되신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 .



現 시점에서 북한 식량지원 과연 필요한가?

최근 북한은 동남아·유럽·중동 등지에서 무상지원이나 후불 또는 求償무역 조건으로 대규모 곡물도입을 추진하면서, 예년과 달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량미 헌납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2월말경 金正日이 쉰 해외공관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해외로부터 식량 80만톤을 입수하도록 지시를 하달하였다고도 한다. 식량 80만톤은 작년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량의 2.5배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공관원들이 주재국 정부와 친북인사들을 상대로 식량지원을 요청중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와 맞물려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혹시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본국으로 소환될지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의 식량사정은 먼저, 북한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곡물의 양이 例年에 비해 부족한 상황은 아니며, 내부적으로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2010년 WFP·FAO 공동조사단 訪北(9.21~10.2)시 당해연도 곡물 생산량을 2009년도에 비해 10만톤이 늘어난 511만톤이라고 통보하였다. 북한이 발표한 511만톤은 쉰주민이 1년간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는 양으로, 金正日도 생전에 "우리는 하루 평균 1만톤, 즉 1년에 대략 365만톤 정도가 소비된다"면서 "매년 곡물 500만톤만 있으면 식량배급은 물론이고 사탕, 과자까지 떨어뜨리지 않고 주민들을 먹일 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WFP·FAO는 지난 해 11월 공동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 곡물생산량을 비료와 농약공급 증가 및 이모작 확대 등의 이유로 북한 자체 추계보다 20여만톤이나 많은 533만톤(精穀기준 448만톤)으로 평가하였다. CIA도 최근 공개한 '북한의 홍수 피해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7월과 9월초 북한에서 연이어 홍수가 발생했지만 농작물 수확에 미친 영향은 1996년과 2007년의 수해와 이에 따른 농업피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relatively low)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내에서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원인으로서는 북한 지도부가 주민통치를 강화할 목적으로 식량 공급을 의

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정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점을 우선적 이유로 들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 秋穀 수확 이후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 연말(2010.12)부터 국제사회에 식량부족을 호소하면서 식량지원 요청 공세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점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일반주민들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절대량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분배의 불평등성에 기인한 측면이 더 강하다는 점이다. 이는 金正日에 대한 절대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黨·政 간부 및 군대 등 체제보위 세력에 식량을 우선적으로 배급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북한내 고위간부들이 식량분배 과정에서 '빼돌리기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최근 열린북한방송은 북한 고위 소식통을 인용, "지난해 12월초부터 올해 2월까지 보위사령부가 전국의 軍부대와 주요 건설장에 검열단을 파견해 각각의 군수창고 및 식량사정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특히 화폐교환을 계기로 현지 軍 간부들과 건설에 참여한 돌격대 간부들이 물건이나 식량을 몰래 시장으로 빼돌리고 있는 현상이 심각하여 식량 및 군수창고가 거의 텅 빈 상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 관리자들의 허위보고로 드러나지 않고 있던 것이 이번 검열을 계기로 예상보다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났고,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대대적인 숙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2.9)한 바 있다.

사안이 이렇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근 대내외적으로 식량도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식량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치·군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먼저, 김정은의 후계기반을 강화하고 김일성 100회, 金正日 70회 생일이 되는 2012년을 소위 '강성대국 진입 원년'으로 선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심성 정책수단으로서 식량 확보가 긴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국의 가디언지도 지난 2.11. "북한의 식량지원 호소는 내년 김일성 생일 100회, 金正日 생일 70회를 대비하여 주민 시혜용 식량을 비축하고 군량미를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간 북한이 정권창건 이후 60년간이나 "흰 쌀밥에 고깃국, 고래 등 같은 기

와칭에 비단옷”이라는 구호를 주민 불만 무마차원에서 우려먹어 왔다는 점에서 식량배급 확대를 ‘주민들을 위한 김정은의 배려’로 날조 선전하여 김정은의 지도자 입지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간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원 중단에 따라 감소된 군량미 보충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내부적으로 중앙당 주도하에 각 기관·기업소 및 일반 가정에 대해 이른바 ‘군량미 헌납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 중이다. 북한이 향후 對南 추가 도발이나 核정책 고수 등에 따른 국제제재 강화 상황에 대비, 식량을 미리 비축해 놓으려는 저의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열린북한방송은 지난 1.27 북한 고위소식통을 인용, “현재 북한이 식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했던 2009년 5월 이전의 상황과 유사하다”면서 “2009년 1월경에도 외교부를 통해 식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가 떨어졌었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식량 입수 지시도 향후 3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또는 추가적인 대남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북제재가 강화될 것에 미리 대비하려는 측면이 보다 강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現시점에서 對北 식량지원의 문제점은

- ① 金正日 독재정권을 지탱하는 권력층만 배불리는 결과,
- ② 북한의 자생적 시장기능 약화 및 북한 내부변화 위축 우려
- ③ 軍糧米 전용으로 대남 군사도발 역량만 강화 초래,
- ④ 북한 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對北공조체제에도 부정적
- ⑤ 당사국 해결 우선을 규정한 UN 인도주의 원칙에도 위배

북한은 金正日 일족을 비롯한 특권계층의 호화사치품 도입이나 WMD 개발 또는 군사력 증강에만 財源을 탕진하면서 주민을 위한 식량 확보에는 무관심한 채, 경제난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도 없이 10년 이상 외부원조로 연명하면서 국제사회에 손만 벌리고 있다. 실례로 그간 핵무기 개발에만 약 10억불, 미사일 개발에는 18억불 정도를 쏟아 붓고 있고, 2009년 한해에 대포동 2호를 비롯하여 총 27기의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약 7,000만불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년 金正日의 69회 생일과 관련해서도 중국 남방지역 과일이나 소 힘줄, 고래고기는 물론 상하이에서 구입한 상어 지느러미와 철갑상어 알 같은 고가의 식품뿐만 아니라 고가의 이불, 액정판(LCD) TV 및 고급 승용차 구입에 중국에서만 1,000만불(112억원) 이상을 썼다고 한다. 아울러 북한은 최근 김정은은 3대 세

습을 위해 평양에 김정은 전용공관을 신축한 데 이어, 2009년 말 함북 경성 온포별장을 폭파한 자리에 새로 전용별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최근에는 10여 km에 달하는 별장 진입용 철로와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강원 원산 송도원 별장내에는 해저 관람실 까지 갖춘 대규모 연회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한 건설전문가는 이들 3개 시설물의 신·개축에만 1억 8천여만불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 돈으로 톤당 300불 수준인 옥수수를 구입할 경우 2,400만 북한주민 전체를 두 달 정도 먹일 수 있는 수량인 60만 톤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와 별도로 북한은 2008년부터 전국에 산재한 33개 호화별장중 13개소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994년 김일성이 죽자 당시 대홍수로 인해 수백만이 굶어죽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전에 집무실로 사용하던 금수산 의사당을 그의 시체보관소로 개조하는 공사를 1995년부터 강행하였는데, 이때 소요된 돈이 8억 9천만불로 이는 당시 국제가격으로 옥수수 600만 톤을 구입하여 북한 주민의 식량문제를 3년간이나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이는 金正日이 북한 주민의 생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여실히 반증하는 사례라 하겠다. 최근에는 金正日의 차남 김정철이 수십명을 대동하고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특급호텔 스위트룸(1일 1실숙박료:60만원)에서 10일간 투숙하며 영국의 인기 록 가수인 에릭 클랩튼의 공연을 VIP석(1인당 35만원)에서 관람하고, 고가의 金正日 생일선물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등 호화 사치쇼핑을 아무 거리낌 없이 즐겼다. 이로 볼 때 북한이 현재 식량난을 과장 선전하면서 국제사회에 유혹의 손길을 건네고 있는 것은 정치·군사적 목적에서 식량을 얻어 내려는 간교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한이 對南 대화공세를 연이어 전개하고 있는 것도 우리로부터 식량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기만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내 일각에서는 전제왕조시대에서나 가능한 북한의 3대세습이나 金正日 부자의 호화사치 생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면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또는 인도주의를 내세우면서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드라마에서 퍼 올린 바하사



3월 한 달도 잘 보내셨는지요? 일본에 쓰나미가 발생해 많은 일본국민들이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더라 생각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세계 각국에서 구호의 손길을 보내고 또 이러한 재난 속에서도 한결같이 질서를 지키는 차분한 일본 국민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과거 우리나라에 못할 짓을 했지만 저런 국민성은 참 배울 만하다 라고 잠깐이나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젯밤 뉴스를 보니까 전문가들이 쓰나미 가능성이 높다고 한 다음날 동해 옥천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남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명품(名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신정아 사건' 을 보면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아 씨는 거짓말로 학력을 포장해서 온갖 이권을 누리다 들켜고서도 끝까지 억울하다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다가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을 비난한 사람을 공격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현상...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정아 씨뿐만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진실인 양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간혹 기사를 읽다보면 정말 어느 게 진실인지... 사람들이 점점 거짓을 용인하고 또 그것을 상품화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려 합니다.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자기 변론에 급급한 반성 없는 사회,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자가 말하기를 언론은 대중의 관심을 쫓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 언론인은 대중을 위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사회도 명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명품 지식이 화제가 되는 사회, 외모만 좇는 사회가 아니라 인품이 중시되는 사회,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니라 삶의 양분들이 화제가 되는 사회, 외형적인 면보다는 행복의 본질이 중시되고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 지식의 경쟁이 아니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사회,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명품 사회일거라 생각합니다.

동해야 웃어라 Tetaplah tersenyum!

과거 드라마는 가상 속 인물과 스토리로 구성되었다면 근래 드라마는 역사를 바탕으로 혹은 현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세세히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드라마 속 가족 관계는 복잡하기 그지없고 출세욕에 눈멀어 남의 불행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심지어는 남을 찍어 누르고 목적인 바를 얻어내고야 마는 인물들이 종종 묘사됩니다. '동해야 웃어라' 의 윤세와 아나운서 역시 이런 인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옛 연인 동해와 그의 어머니를 궁지에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갖가지 술수로 괴롭힙니다.

김준의 아내 혜숙은 점점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김준이 앵커직을 고사하자 김준을 붙잡을 수 있는 핑계 거리를 만들기 위해 일방적으로 뉴스 진행을 수락합니다. 김준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혜숙에게 말합니다.



Kenapa kau sangat dogmatis?

당신 왜 이렇게 독단적이야?

남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 또는 근본적인 연구를 하지 않고 주관적인 편견으로 판

단하는 것을 독단적이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유사어로는 고집에 센, 안하무인이라는 표현을 할 때 **Keras kepala**.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요지부동일 때 (단단히 마음먹은 경우) **Tegas**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Dog-mati**와 **keras kepala**는 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집대로 행동하는 뜻에 가깝고 **Tegas**는 성품이 강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함을 표현하는 뜻에 가깝습니다.

Dogmatis / Keras kepala / Tegas

-**Dogmatis** (Bersifat mengikuti atau menjabarkan suatu ajaran atau tanpa kritik sama sekali) 독단적이란 뜻으로 절대 무비평으로 (편견에 의해) 어떠한 결정이나 교육내용을 수용하거나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 **Menyampaikan nilai-nilai agama melalui film bisa menjadi salah satu bentuk pengajaran yang tidak terkesan dogmatis dan memaksa.**

영화를 통해 종교적 가치를 전달하면 강요하거나 독단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교육할 수 있다.

-**Keras kepala** (= kepala batu / tidak mau menurut nasihat orang / tidak mau mendengar pendapat orang lain.)

고집이 센이란 뜻으로 타인의 의견이나 충고를 듣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예) **Karena dia keras kepala soal pekerjaan, teman-teman kantornya selalu berusaha untuk tidak berurusan dengannya.**

그는 일에 있어서 고집이 너무 세서 (남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사무실 동료들이 그와 업무에 연관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Tegas** (Jelas dan terang benar, tentu dan pasti (tidak ragu-ragu, tidak samar-samar))

분명한 / 정말로 맞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주저하거나 애매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 **Seorang pemimpin harus bersikap tegas dalam pengambilan dan pelaksanaan keputusan.**

지도자는 결정을 내리거나 실행할 때 분명한 (다른 의견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

어떻게 해서든 안나와 동해를 쫓아내려던 세와는 동해와 얘기하다 시어머니 혜숙에게 들킵니다. 그럼에도 오리를 내미는 세와에게 혜숙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Aku sudah memergokimu

내가 이미 현장 목격을 했는데 (현장에서 발각되다/들키다)

memergoki 유사한 뜻을 갖은 **menangkap basah**는 현장에서 체포된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Pergok / Memergoki** (Mendapati (tidak dengan sengaja), mengetahui)

현장에서 발각되다/들키다. (우연히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하다.)

예) **Anak-anak itu memergoki pencuri yang sedang mencong ke jendela rumah ibu.**

아이들은 어머니집 창문을 뜯고 있는 도둑을 현장목격했다.

-**Menangkap basah** : Tertangkap basah: memergoki dan menangkap (orang yang sedang melakukan kejahatan atau perbuatan terlarang) 현장목격, 현장체포의 뜻으로 금지된 행동이나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했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 **Polisi menangkap basah seorang pedagang kaki lima yang sedang menawarkan produknya pada sekumpulan pemuda di salah satu sudut taman kota.**

경찰은 엑스터시 배포자가 시내 공원 구석에서 젊은이들에게 흥정하는 걸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인도웹이 제공하는 교민커뮤니티

- 소그룹활동 소개 - 건강한 삶을 위하여
- 유익한 정보 -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인도웹에서 제공하는 교민커뮤니티'는 인도웹 게시판의 글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교민커뮤니티가 <한인뉴스> 독자와 <인도웹> 회원들 사이에
더욱 알찬 정보 공유와 교감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만날까요? - 마하나임 축구단

안녕하세요...마하나임 축구단을 소개합니다.마하나임 축구단은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부설 축구단으로 2004년 창단되어 7년여 동안 한결같이 매주 토요일 아침에 모여 즐거움을 나누고 건강을 지키는 축구모임입니다. 약 20여 명의 회원이 매주 토요일 아침현자인 상대팀과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마하나임 축구단이 사용하는 운동장은 시내 중심에 있는 스나얀(SENAYAN Lapangan B) 운동장이며 매주 토요일 아침 6시부터 7시30분까지 경기를 진행합니다. 교회 부설 축구단이지만, 교인이 아닌 자카르타 거주하는, 축구를 좋아하는 어느 분이라도 참여가 가능하며 특히, 토요일 이른 아침시간에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쾌한 공기와 덥지 않은 날씨 속에 즐겁게 축구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시간적인 문제나, 거리상의 문제로 망설이셨던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통편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연락주시면 최대한 인근의 기존회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내 중심부에 있어 택시를 이용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 주님의교회 사무실 021-831-3843(교환204) 감독 : 이국홍 0815-8686-0000 총무 : 김순수 0813-1021-3763
작성자 : mahanaim



테니스로 즐거운 인생! - 아라테

I like tennis! 아라테 자카르타입니다. 아라테는 영문 이름 그대로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순수 아마추어 동호회입니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몸에 나쁜 독성물질이 쌓이고 면역이 떨어집니다. 병은 이렇게 시작되는거지요.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름 체득하신 방법으로 스트레스들을 잘 해소하시겠지만 다른 스트레스 해결책들과 테니스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트레스해소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술이지만 술은 몸에 나쁜영향을 줍니다. 술은 몸에 해가 되나 테니스는 도움이 됩니다. 테니스는 산소운동이며 지방을 태우고 심장혈관의 건강을 높입니다.¹⁾ (여성회원 중 한분은 테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파트 한 바퀴도 혁혁거리며 뛰었는데 테니스 일 년 만에 세 바퀴를 단숨에 뛰게 되었다고 합니다). 테니스를 평소에 늘 하게 되면 전반적인 체력이 증진됩니다. 체력증진으로 병에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²⁾ 골격 강화에 도움이 되어 골다공증예방에 도움이 됩니다.³⁾

둘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모임에 가입도 하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모든 대화가 잘 되면 좋겠지만, 더러는 그 모임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라테는 다릅니다. 아라테는 주가 운동입니다. 운동 후 각자 뛰고 나면 기분이 좋아 집이나 회사에서는 하지 않던 농담도 코트에서는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기분 좋아진 사람들이 실컷 웃고 농담하면 언제 시간이 흘렀나 싶게 운동이 끝나고 돌아갈 시간이 됩니다. 원-원 모임이 되어 회원 각자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

고 기쁨을 받는 거지요. 회사에서 찌푸렸던 기억도 공을 몇 번 세계 치면 없어져 다음 날 웃으며 일터로 복귀하게 됩니다.

셋째, 헬스클럽에서 하는 피트니스와 비교해보면, 재미라는 측면에서 테니스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헬스클럽에서 벽에 사진을 붙여 놓고 온사마 팔뚝 만들기, 현빈 복근 만들기, 유이 꿀벅지 만들기를 위해 이마에 띠방울 맺히도록 뛰고 달리기 하면 과연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요? 피트니스 십 년 계속 한다는 분은 못 봤으나 테니스는 구력이 20년, 30년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운동은 재미가 있어야 자꾸 하게 되고 꾸준히 하게 됩니다. 테니스는 재미라는 측면에서 다른 운동에 양보하기 힘듭니다.

넷째, 골프와 비교하면 테니스코트는 아파트마다 있어서 편리합니다. 집앞에 즐겁게 운동할 장소가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또한 운반할 장비가 간단합니다. 골프가방과 무게에 비하면 테니스는 라켓 하나만 달랑 들고 집앞 코트로 걸어나가면 됩니다. 비용적 측면에서도 훨씬 저렴합니다. 장비구입, 코트이용료, 의상비 모든 것이 골프보다 저렴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재미있게 테니스를 계속할 수 있는 아라테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아라테는 테니스로 즐거운 인생을 꿈꿉니다. 회원 모두가 아라테에 머무는 순간 즐거워하고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이라는 선물을 받고 돌아갑니다.

둘째 아라테는 테니스로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어떤 취미에 빠지면 그것으로 가정에 불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잦은 골프는 부부화목에 방해되지만 아라테는 가족동반을 환영합니다. 테니스 실력이 안 되더라도 옆에 빈 코트에서 레슨을 받으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오실 의향만 있으면 가족에게 아라테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혹 운동에 참가 하지 않더라도 뒤풀이 식사에는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온 가족이 즐거워야참뵐을 발하기에 아라테는 행복한 가정만 들기가 또 다른 목표입니다.

셋째 아라테는 건강한 사회를 꿈꿉니다. 회원 각자가 즐겁고 가정이 행복하고 회사일이 잘 되면 건강한 사회는 저절로 옵니다. 그것을 위해선 우선 클럽이 건전하고 건

강한 문화를 가져야합니다. 아라테 회원들은 이점에서 모두 훌륭하다고 자부합니다. 맑고 밝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떻게 건전하고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봄날의 싱그러움과 여름 청년의 힘찬 기백과 가을의 성숙함이 잘 어우러진 건강한 클럽입니다.

아라테의 문은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인도웹 소모임에 오셔서 회원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레벨은 초급, 중급, 고급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하시는 분들도 매 6개월마다 신입 기수를 모집하고 있으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그 레벨에 맞는 게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즐거운 인생을 아라테 테니스와 함께 하십시오.

작성자 : latte

1), 2), 3) “테니스의 34가지 장점”, 미국테니스협회에서 발행하는 'SPORT SCIENCE FOR TENNIS' 97년 봄호에 게재된 글에서 발췌.



제공 : 인도웹 (www.indoweb.org)
bagus@indoweb.org

한 · 인니문화연구원

제2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공모전 안내 - 나는 늘 떠나면서 살지 -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으로, 막연한 떠남으로 우리는 늘 설렙니다. 차밭에서는 한 그루 차나무가 되고 고도^{고도}에서는 영원을 느끼고 꽃을 만나면 향기가, 소외된 이웃을 만나면 눈물이 되는 아름다운 당신, 인도네시아의 자연과 문화를 마음의 풍경에 담아 설렙이 더는 향수가 되지 않는 진정 자유로운 당신을 찾습니다.

지난해 제1회 공모전에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공모전에도 함께 하시어 아름다운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주 제 : 인도네시아 이야기
- 원고 모집 기간 : 2011년 5월~8월 20일 (문화탐방기 / 생활수기)
- 원고분량 : 산문 - A4용지 2쪽 이상 / 시 - 자유
- 대 상 : 학생(만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일반인
- 보내실 곳 : love.indonesia@hotmail.com / manggis7@hotmail.com
- 시상 및 낭송회 9월말 (날짜, 장소 추후 공고)
- 시상내역 : 일반부, 학생부 별도 시상

상 의 종 류	인 원	시 상	시 상 내 역
대 상 (1명)	1	재인니한국대사상	상장과 부상
최우수상(각 1명)	2	재인니한인회장상	상장과 부상
우 수 상 (각 1명)	2	한 · 인니문화연구원 이사장상	상장과 부상
우 수 상 (각 1명)	2	한 · 인니문화연구원장상	상장과 부상
우 수 상 (각 1명)	2	재인니한인문협회장상	상장과 부상
특 별 상 (각 1명)	2	재인니상공회의소수석부회장상	상장과 부상
특 별 상 (각 1명)	2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상장과 부상
장 려 상 (각 5명)	5	한 · 인니문화연구원상	상장과 부상

* 시상내역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응모요령 (글자모양=신명조, 글자크기=11, 행간=160%)

- ① 응모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기할 것
- ② 원고는 위의 지정된 e-mail로 응모할 것
- ③ 응모작품은 제출일 이전 미발표된 순수창작물이어야 함
- ④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표절로 판명된 경우 당선이 취소됨
- 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사공경 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박정자 0815.1070.3065 / poemever@hanmail.net

후원: 재인니한국대사관, 재인니한인회, 재인니 상공회의소, 한국자유총연맹, 한국부인회, 한나프레스, 일요신문, 한인뉴스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92 2500
영사과	2992 303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021 527 2612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 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9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 한인회	5532 5555
반둥 한인회	022 200 6880
발리 한인회	0361 769 124
버카시 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카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탐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빨렘방 한인회	
한국 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2 807 8607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당)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하나 은행	522 012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 있는 교회	548 3044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7 7317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참빛 교회	720 0240
한마음 교회	739 5035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동부자바포교원)	729 0211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가주**

조지언 퍼니처	750 6109, 766 0364
---------	--------------------



MATAARI
TOUR & TRAVEL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귀환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량 배상 -

DOOWANG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rn.net.id



DAILY KOREA
INDONESIA

인도네시아가 보이는
리.얼.타.임.뉴스

데일리코리아는 유료정보입니다.

Tel 021-725-7447
HP 0813-1898-9897
dailykoreaindonesia@gmail.com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데مْ와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4587 8833 Fax: 4586 5645
HP: 0812 967 8131
Email: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s@yahoo.co.kr

**광고 문의
521-2515**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새로 올리려는 분은
한인뉴스 편집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컷 - 머니

MONEY CHANGER

(허가번호 NO.9/49/KEP.GB/DPM/2007)

100% 환전 송금

- 3시이후 서비스가능
- 토·일요일 서비스가능
- 배달 서비스가능

SUDIRMAN PLAZA

Jl. Jend. Sudirman B1

Tel. : (021) 5793-9990. 6840~1

직통 : 0878-8777-0111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0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플라빠가딩)	9773 478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 한의원	722 7745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동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가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가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플라빠가딩)	2850 7600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봉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 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 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뿐독인다	315	1033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 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라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 447	414
소양강(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쁘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쁘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 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안 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안하우스 횃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치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쁘찌까랑)	8990	6230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 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	7278	0856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	603	9274
솔로몬 투어	0813	1934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뎀)	0778	462
500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5	1628
5296-0024		

생활정보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동서 증권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우리코리도 증권	797	6210
클레몽 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리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하숙집

شط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갈릴리게스트하우스	021	522 4666
	0858	1341 3222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앤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 논술	4586	7844

뽀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 아트스쿨(리쁘까라와찌)	546	4531
에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한인에총(한상재)	0811	188 612
미술협회(인치혁)	0813	1514 9978
음악협회(이일하)	0815	1150 6664
어린이합창단(김영희)	0815	181 3102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1433 7187
서예협회(손인식)	0815	9369 114
월화차문화원 정연규	0818	183 906
색소폰동우회(강희중)	0816	798 221
문인협회 한상재	(0811)	188 612)
문화연구원(사공경)	0816	1909 976
한바패(장방식)	0811	902 003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엄종한	0811	177 503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갈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두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3	0172
환전	712	8556

●골프샵

교민 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 골프샵	546	0838
레네 세계골프	739	8312
한양(갈라빠가징)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 플레이골프	344	2540
MFS 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십스 골프	570	3063
배준원 골프교실	781	7679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인니어통역/번역(Mrs.Lee)	021-7432687	
	021-9432	2102

발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슈퍼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754 100
꼬끼 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장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 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MISTICANZA
Authentic Italian and Indonesian

Phone & Fax : 021-29022837
SAHID SUDIRMAN Residence
Jl. Jend. Sudirman 86
Jakarta 10220 - Indonesia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 식당	201 5007~8
명가 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 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 사우나	201 5007~8
반동 렌트카	0813 9400 9981
반동 한인부동산	0858 6130 8882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넷서날 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Lim Tailor

**40년 전통!! 최고의 기술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마춤양복 · 예복
바틱 · 와이셔츠 · 회사유니폼**

**유니폼! 회사의 얼굴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단체복을 맞춰드립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바틱!!
두 벌 맞추시면 한 벌을 더 해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인도네시아 어디나 찾아가 맞춰드립니다.
0811.187.3382 // 0815.1059.0827
<http://limtailor.indoweb.org>**



인도네시아에 한국 문화원이 건립됩니다.

장소 : EQUITY TOWER 17층(864 m²)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Reception Area>

"한국 문화원"은
LIVING A&I가 DESIGN하고 시공합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인도네시아에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류를 재점화시키는 거점으로서
문화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됩니다.



<Reception Area>

LIVING A&I는
"한국 문화원"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시는 모든 교민들께서
문화 한국의 자긍심을 느끼실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DESIGN과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ultimedia Showroom>

<Library>

THE SMART WAY FOR INTERIOR @ LIVING A&I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OFFICE : 7278-0704 MOBILE : 0815-1902-0666, 0811-989-634



HYUNDAI Truck

Yang Memberikan Keuntungan Ini Bagi Anda!

- Untung!** Karena irit bahan bakar
- Untung!** Karena tak pernah rusak
- Untung!** Karena dapat perawatan di manapun



Hyundai, Official Partner of 2010 FIFA World Cup™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사업으로
잠비아에 파견돼 축제 때
아침식사를 준비 중인 박선희씨

유네스코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 유네스코 정책 개발에서부터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사업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유네스코헌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세계평화를 이룩하려는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한국은 1950년 유네스코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직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네스코는 긴급원조를 결의해, 전쟁으로 황폐화된 한국 교육 재건을 도왔습니다. 1950년대에 한국 초등학생들은 유네스코 지원으로 설립한 교과서공장의 교과서로 공부했으며, 이후에도 유네스코는 한국의 교육, 과학, 문화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1954년 1월 발족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본부 및 회원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가위원회로 성장했으며, 과거에 받은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0년에 청년해외봉사단을 창설, 오늘날 한국 해외봉사활동의 초석을 닦았으며, 지난해에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에 한국 젊은이들을 보내, 문명퇴치와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이나 기록유산을 발굴, 보호하는 지원사업에도 앞장서 지난 3월에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절차를 소개하는 워크숍을 자카르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밖에 오는 11월 부산에 세계석학들을 초청해 유네스코 최초로 세계인문학포럼을 개최하는 등, 유네스코 이상을 구현하고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를 증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